





| SRI-기획-2018-21 |

# 서수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재생 방향 연구

- 에코뮤지움 기법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eneration Direction of Seosuwon using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eco-museum technique -

김주석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다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2018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8년 11월 30일

**발행** 2018년 11월 30일

**ISBN** 979-11-89160-49-4 (9353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김주석, 2018. 「서수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재생 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비매품

## 국문요약

수원역 서측에서 서울농대와 서호일대를 아우르는 서둔동 일대는 수원도심인 수원역에 매우 근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비행장의 영향으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생태적 환경이 매우 양호하며, 역사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지역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본 연구는 향후 수원공항 이전과 더불어 대상지역에 대한 도시적 차원의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도심속 환경생태를 유지하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비방향으로 에코뮤지움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에코뮤지움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현지에 보존, 육성, 전시하는 것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의 유지 및 관리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는 개념이다.

서둔동 일대는 도심에 근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환경이 양호하며,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이 산재해 있고, 도시·건축적으로도 활용가능한 요소가 많다. 개별 자원의 독립적 보전 보다는 지역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정비 및 보전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특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비수법으로서 에코뮤지움 기법이 매우 적절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수원시가 표방해 온 인간중심 도시, 환경수도 등 주요 도시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에코뮤지움 기법의 적용은 서둔동 일대에 적정한 지역정비·활성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서둔동 일대는 평탄지역에 많은 자원들이 밀집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보행접근이 매우 양호하며, 지역관리에 관심 있는 다수의 주민조직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에코뮤지움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개발압력이 낮은 상황에서도 잠사박물관, 선경직물, 정미소, 푸른지대, 영신연와 등 최근 들어 소실되거나 소실의 위험이 높은 지역자원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서둔야학, 서울대수목원 처럼 그 가치에 비해 거의 외부에 알려져 있지 못한 지역자원들이 있다.

따라서, 점차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대하는 이 시점에서 서둔동 지역에 대한 자원 조사와 가치부여 및 보호·보전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둔동 일대의 에코뮤지움 구성에 있어 공간계획상 요구되는 거점과 체험요소와 체험루트의 설정에 있어 수원역일대와 서호일대, 그리고 구(舊)서울농대일대를 3대 거점으로

로 설정하고 이들 거점을 생태교통으로 연결하며, 연도형 상가와 차없는 거리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주택재개발사업 해제구역으로 경기도 문화마을 사업 구역 등을 지역 체류형 복합용도 마을로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에코뮤지움, 서수원, 지역재생, 생태교통, 역사문화자원

---

## 차 례

---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9
<b>제2장 에코뮤지움 이론과 실제</b> .....	<b>11</b>
제1절 에코뮤지움의 의미 .....	13
1. ‘에코뮤지움(지역생태박물관)’ 용어의 등장 .....	13
2. 에코뮤지움의 구성요소 .....	14
3. 서둔동 일대 에코뮤지움적용 의의 .....	15
제2절 에코뮤지움 사례와 계획 점검요소 .....	17
1. 에코뮤지움 적용사례 .....	17
2. 에코뮤지움 계획점검 요소 .....	31
<b>제3장 수원역 서측, 서둔동 일대 지역현황·자산</b> .....	<b>35</b>
제1절 공간·환경자원 .....	37
1. 도시·건축 .....	37
2. 역사문화 .....	54
3. 자연생태 .....	73
제2절 주민활동 자원 .....	77
1.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	77
2. 권선 한마음봉사단 .....	79
3. 별터재생협의체 .....	81
4. 서둔동 마을만들기협의회 .....	82
5. 서둔동 별터마을회 .....	82
6. 별터 온(ON) .....	84
제3절 지역자원에 대한 가치확인 .....	85

1. 서수원 소위원회 운영 .....	85
2. 원탁토론 .....	89
<b>제4장 결론 및 제언 .....</b>	<b>95</b>
제1절 결론 .....	95
제2절 정책적 제언 .....	97
1. 3대 거점(휴게, 체험, 전시) 정비 .....	97
2. 지역탐방 테마설정 : 주요거점과 체험요소를 잇는 순환형 보행가로 정비 .....	98
3. 지역 내 주거지 재생 방향 .....	99

---

## 표 차례

---

〈표 1-1〉 환경수도 수원 .....	4
〈표 1-2〉 지역별 전답(田畓) 현황 .....	5
〈표 2-1〉 기존 박물관과 에코뮤지움의 차이 .....	14
〈표 2-2〉 사촌마을자료전시관과 학선리 마을박물관 비교 .....	23
〈표 2-3〉 에코뮤지움 조성시 주요 검토사항 .....	31
〈표 3-1〉 탑동 시민농장 운영계획 .....	45
〈표 3-2〉 세부활용계획 .....	47
〈표 3-3〉 건물활용계획 .....	47
〈표 3-4〉 추진경과 .....	50
〈표 3-5〉 주요 시설 현황 .....	50
〈표 3-6〉 유료시설 현황 .....	51
〈표 3-7〉 객실현황 .....	51
〈표 3-8〉 ‘영신연와’를 포함하는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 .....	70
〈표 3-9〉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세부활동내역(2017년 기준) .....	78
〈표 3-10〉 원탁토론 회의 진행 순서 .....	90

##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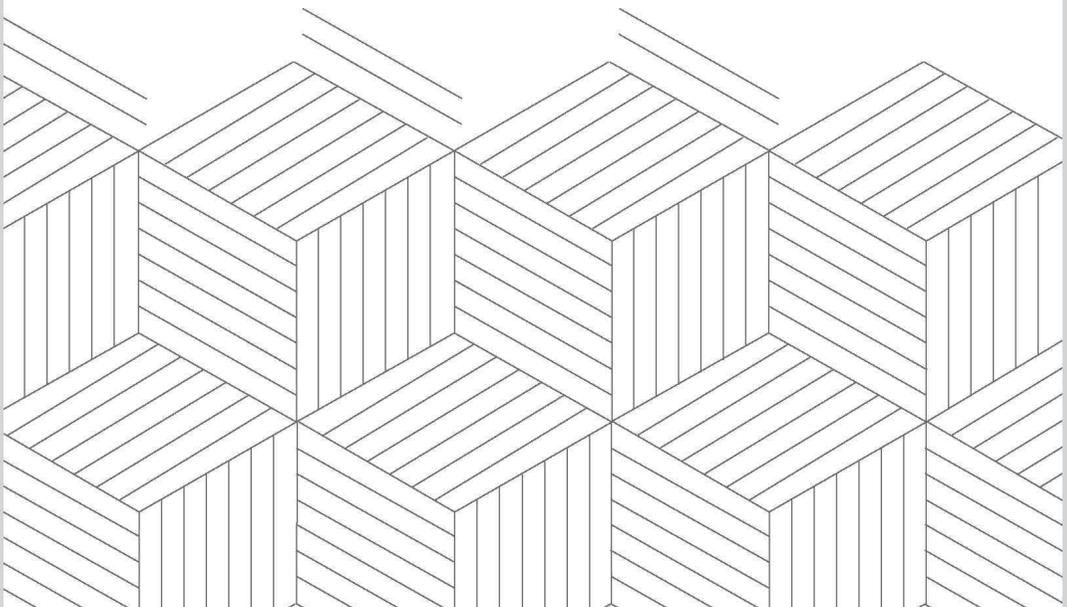
<그림 1-1> 수원비행장 위치와 경부선 철도 .....	4
<그림 1-2> 서수원 토지 이용 현황 .....	5
<그림 1-3> 서수원의 주요 도시계획적 변화요소 .....	6
<그림 1-4> 철도에 의한 동서구분 / 서수원 지역 농지경관 .....	7
<그림 1-5> 연구 대상 범위 .....	9
<그림 2-1> 에코뮤지움의구성요소 .....	15
<그림 2-2> 철암의 쇠퇴 현황모습 .....	17
<그림 2-3> 예술가 단체 활동 .....	18
<그림 2-4> 사촌마을자료전시관 및 문화지도 .....	20
<그림 2-5> 학선리 마을박물관 .....	22
<그림 2-6> 통일촌 주요 요소 .....	25
<그림 2-7> 구림마을 주요 요소 .....	27
<그림 2-8> 경기만 에코뮤지움 거점센터 .....	29
<그림 2-9> 경기만 에코뮤지움 비전과 목표 .....	30
<그림 2-10> 에코뮤지움 공간계획 모식도 .....	32
<그림 3-1> 대상구역 내 도시건축 요소 위치도 .....	37
<그림 3-2> 서호공원일대(서호꽃뫼공원, 여기산 공원 포함) .....	38
<그림 3-3> 서호공원 모습 .....	38
<그림 3-4>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조감도 .....	39
<그림 3-5> 경기상상캠퍼스 오픈 포스터 .....	41
<그림 3-6> 경기상상캠퍼스 .....	42
<그림 3-7>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 포스터 (일부) .....	43
<그림 3-8>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 모습 (일부) .....	44
<그림 3-9> 탑동시민농장(예정) .....	44
<그림 3-10> 텃밭체험운영 .....	45

〈그림 3-11〉 경관단지 조성 및 교육농장 운영 .....	46
〈그림 3-12〉 토지이용계획(안) .....	46
〈그림 3-13〉 건물활용계획 .....	47
〈그림 3-14〉 경기도 따복기숙사 .....	48
〈그림 3-15〉 위치도 및 조감도 .....	49
〈그림 3-16〉 서둔동 주택재개발사업 해제구역 주변현황 .....	52
〈그림 3-17〉 사업구역 내부 노후건축물 현황 .....	52
〈그림 3-18〉 주요사업계획안 .....	53
〈그림 3-19〉 사후관리 및 지속발전방향 .....	53
〈그림 3-20〉 서수원 역사문화 .....	54
〈그림 3-21〉 여기산 선사유적지, 우장춘박사 묘 .....	55
〈그림 3-22〉 일제강점기 서호와 향미정 .....	56
〈그림 3-23〉 축만제 .....	57
〈그림 3-24〉 향미정 현재모습 .....	58
〈그림 3-25〉 농촌진흥청 .....	59
〈그림 3-26〉 양카라길, 양카라 공원 .....	61
〈그림 3-27〉 양카라길, 양카라 공원 .....	61
〈그림 3-28〉 서둔 야학터 .....	62
〈그림 3-29〉 서둔야학 교사 건립 모습 .....	63
〈그림 3-30〉 서둔야학 교사준공 기념식 .....	64
〈그림 3-31〉 서둔야학 그 때 그모습, 서둔야학회 .....	65
〈그림 3-32〉 과거 권업모범장의 모습 .....	66
〈그림 3-33〉 서울농대 현재모습 .....	67
〈그림 3-34〉 잠사과학박물관 .....	68
〈그림 3-35〉 푸른지대 딸기밭 .....	68
〈그림 3-36〉 푸른지대 현황 .....	68
〈그림 3-37〉 영신연와 부지 현황 .....	69
〈그림 3-38〉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	70
〈그림 3-39〉 선경직물 부지 2016년 모습(도시정책 시민계획단 활동) .....	71
〈그림 3-40〉 선경직물부지재생 기획(안) 2016년 수원시정연구원 김주석박사 .....	71
〈그림 3-41〉 선경직물 터 개발계획과 부지 현황 .....	72

〈그림 3-42〉 선경창업주 생가 현황 .....	72
〈그림 3-43〉 서수원 자연생태 현황 .....	73
〈그림 3-44〉 서호 인공섬 실태조사 현장사진 .....	74
〈그림 3-45〉 서호/서호천 자연식생 .....	74
〈그림 3-46〉 서호천 정비현황 및 생태체험 .....	75
〈그림 3-47〉 서울대학교 수목원 .....	75
〈그림 3-48〉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활동 .....	78
〈그림 3-49〉 권선 한마음봉사단 조직도 .....	79
〈그림 3-50〉 한마음봉사단 활동사진 .....	80
〈그림 3-51〉 별터협의회 발대식과 안심마을 벤치마킹 .....	81
〈그림 3-52〉 서둔동 마을만들기 협의회 주요활동 .....	82
〈그림 3-53〉 별터문화마을 사업 .....	83
〈그림 3-54〉 별터마을회 활동모습 .....	83
〈그림 3-55〉 별터 온 활동 모습 .....	84
〈그림 3-56〉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자료 .....	89
〈그림 3-57〉 시민계획단 원탁토론 모습 .....	90
〈그림 3-58〉 원탁토론 주제 .....	91
〈그림 4-1〉 서둔동 일대 보행동선을 고려한 3대 거점 설정 .....	98
〈그림 4-2〉 서둔동 일대 보행 및 생태교통 루트 .....	99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수원역의 서측, 서둔동 일대는 그동안 수원비행장의 소음권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이 제한적이어서 저밀의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호(축만제) 및 서호천을 중심으로 생태자원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

수원비행장 이전, 롯데몰 및 환승센터 등 다양한 도시계획적 변화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에서도 청년문화창작소 조성)경기도, 문화자원조사 및 보전계획,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차 없는 거리행사 등 여러 지역재생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15년도 수원 미래전략 연구포럼을 통해서도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병행할 수 있는 재생방안으로서 에코뮤지움의 필요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서울농대 이전 이래 수원역 유동인구의 유입이 사라지고 쇠퇴되어버린 수원역 서측, 서둔동 일대에 대한 지역재생관점에서의 정비방향을 계획, 제시하고자 한다.

### ① 도시정책적 측면

수원시는 민선5기 환경운동가 출신 시장이 들어서면서 2011년 인간과 자연생태의 공존을 바탕으로 ‘환경수도<sup>1)</sup> 수원’을 선언하고, 행정과 기업, 시민의 3대 주체가 협력하는 실천전략을 발표하였다.

환경수도 수원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으나, 도시공간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사례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편이다.

도시정책으로서 수원시가 내세우고 있는 환경수도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향유, 실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안이 요구된다.

1) 환경보전, 경제개발, 사회적 형평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지속가능하며 환경적으로 모범이 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미래도시

〈표 1-1〉 환경수도 수원

구분	내용
환경수도 수원 3대 도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도시</li> <li>- 미래지구적 환경위기에 대비하는 저탄소 녹색도시</li> <li>-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li> </ul>
환경수도 수원 만들기 시민실천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원청개구리가 사는 초록세상을 만들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가 되어요.</li> <li>-우리 마을의 먹을거리로 건강한 밥상을 차려요.</li> <li>-마을의 녹지와 습지를 보호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만들어요.</li> </ul> </li> <li>2. 생태교통으로 시민과 도시의 건강을 지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걷기와 자전거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요.</li> <li>-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어요.</li> <li>-승용차를 같이 타고 친환경 운전습관을 가져요.</li> </ul> </li> <li>3. 에너지 농부가 되어 경제를 살려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사용은 절반! 탄소포인트는 두 배!</li> <li>-자연에너지(태양, 지열, 바람, 빗물)를 이용해요.</li> <li>-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여요</li> </ul> </li> </ol>

② 도시관리적 측면

수원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경부선 철도가 노상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수원시를 동·서로 나누어 동서 교통 및 교류 부분에 있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남서측에는 수원(공군)비행장이 자리 잡고 있어 항공기 소음으로 서수원권역은 주거 지조성 등 도시개발측면에서 외면되어 왔다.

〈그림 1-1〉 수원비행장 위치와 경부선 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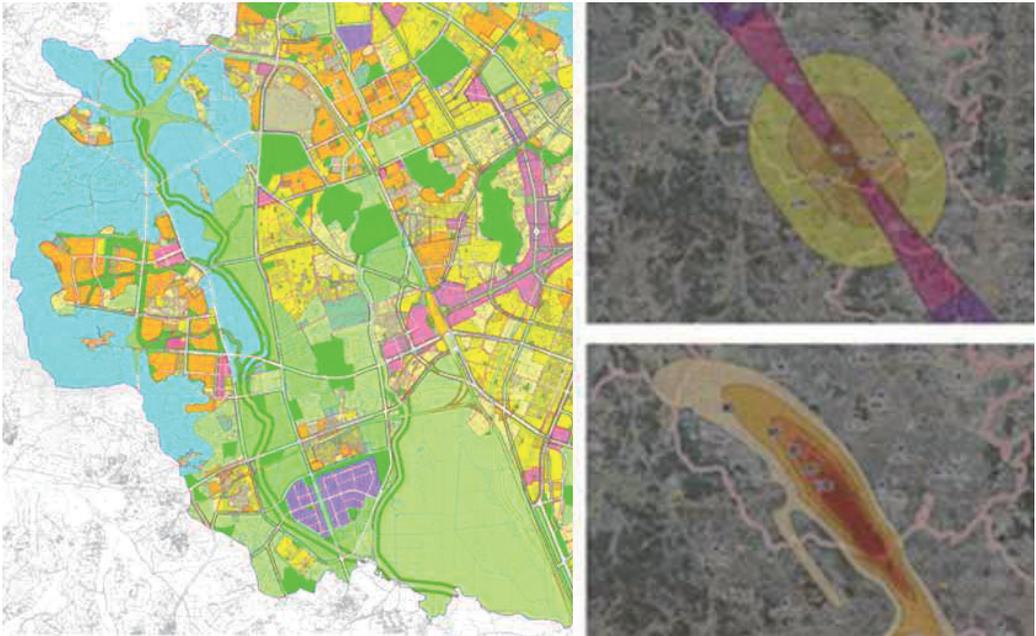


이러한 도시개발 차이에 따라 인구밀집도에서도 차이가 나며, 시민편의시설도 동·서간 격

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도시계획상의 토지 이용을 보면<그림 1-2> 수원비행장 소음 권역을 따라 많은 부분이 녹지 및 농경지로 남아있다. 이러한 서수원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구역인 권선구는 다른 구에 비해 1/3이상이 전답(田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 서수원 토지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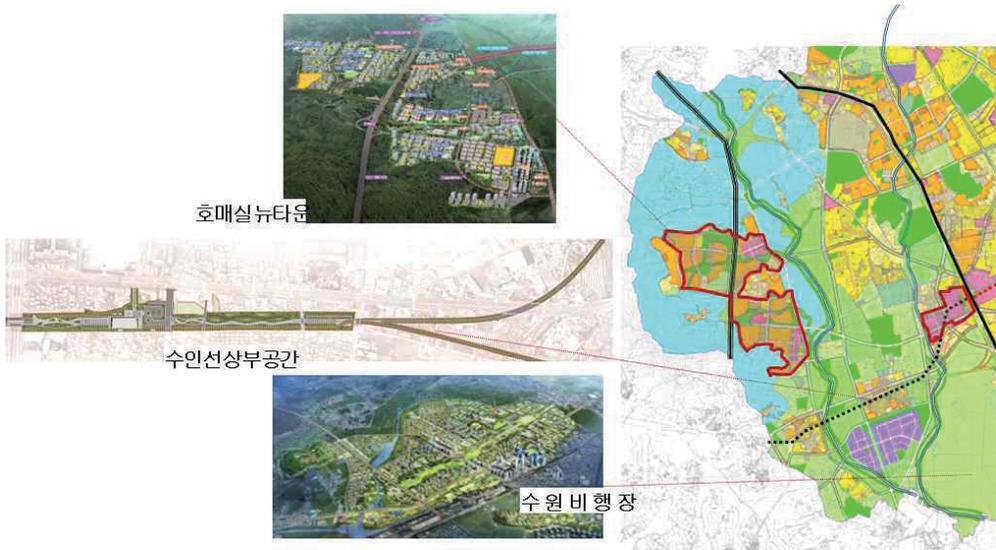


<표 1-2> 지역별 전답(田畝) 현황

구분		전	답	소계
장안구	면적(km <sup>2</sup> )	1.61	1.20	2.81
	비율(%)	4.8	3.6	8.4
영통구	면적(km <sup>2</sup> )	1.00	1.60	2.6
	비율(%)	3.6	5.8	9.1
팔달구	면적(km <sup>2</sup> )	0.36	0.29	0.65
	비율(%)	2.8	2.3	5.1
3개구 합계	면적(km <sup>2</sup> )	2.97	3.09	6.06
	비율(%)	4.02	4.18	8.2
권선구	면적(km <sup>2</sup> )	6.19	11.39	17.58
	비율(%)	13.1	24.1	37.2

그러나 최근 군공항 이전 및 수인선 착공 및 지화화를 통한 상부공간 조성이 이슈화되면서 서수원권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절대농지에 대한 해제사례가 발생하고, 지역민의 용도변경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등 해당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시급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림 1-3〉 서수원의 주요 도시계획적 변화요소



### ③ 도심활성화와 새로운 도시브랜드 형성

수원시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도시브랜드는 수원화성으로 대표된다. 수원화성은 선진적 도시사회이념과 기술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생활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수원시의 원도심은 수원역에서 수원화성에 이르는 동축가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그림1-2〉의 상업지역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수원의 주요 관문중 하나인 수원역은 철도교통의 특성상 수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객수송규모는 연간 1218만5442명<sup>2)</sup>(하루평균 3만3384명)으로 서울, 동대구, 부산, 대전, 울산, 수서에 이어, 전국 7위<sup>3)</sup>에 위치한다. 지방대학생들의 관문이라 불리는 수원역은 역 주변으로 대학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수원역 주변 유동인구는 2015년 기준 하루 35만<sup>4)</sup>으로 추산되었고, 경기남부권을 아우르는 롯데몰과 AK몰 활성화와 더불어 유동인구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2018):60-81.

3) 한국철도공사, (주)SR 포함, 제55회 2017 철도통계연보 기준

4) 경기신문, 2015.3.31., 전자신문4면, 수원역 하루 유동인구 35만여명 '황금상권', 윤현민기자

그러나 이러한 유동인구의 대부분은 수원역 동측에서 움직이며, 수원역 서측으로는 이어지고 있지 못하며, 특히 서측지역에 있던 서울농대와 농촌진흥청 이전으로 그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림 1-4〉 철도에 의한 동서구분 / 서수원 지역 농지경관



수원역 서측으로 위치한 서수원권역은 미·저개발되어 있어, 생태환경적으로 비교적 양호하며 황구지천과 서호천을 따라 자연식생과 근대문화자원이 많다.

문화적으로는 특히, 서호천을 따라 정조의 둔전을 시작으로 근대 농업모범장과 서울농대, 농촌진흥청<sup>5)</sup>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차원의 농업경제의 혁신거점이자, 보급 거점이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단위농협인 고색농협의 발상지이기도 하는 등 농업문화와 관련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도시농업의 새로운 형태로서 자연생태와 도시민의 생활이 건전하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생활문화 창출, 특히, 도심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생태환경 형성 등의 지역 특성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이 강조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서 자리마김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의 구체화 방안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원역의 많은 유동인구를 동측으로 만이 아니라 서측으로 파급할 수 있는 방안과 잇혀져 가는 수원의 근대문화 및 데이트(청년문화) 명소를 되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양호한 생태환경과 지역활성화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 최근 (구)농진청 부지 일부에 농업 체험 전시관이 예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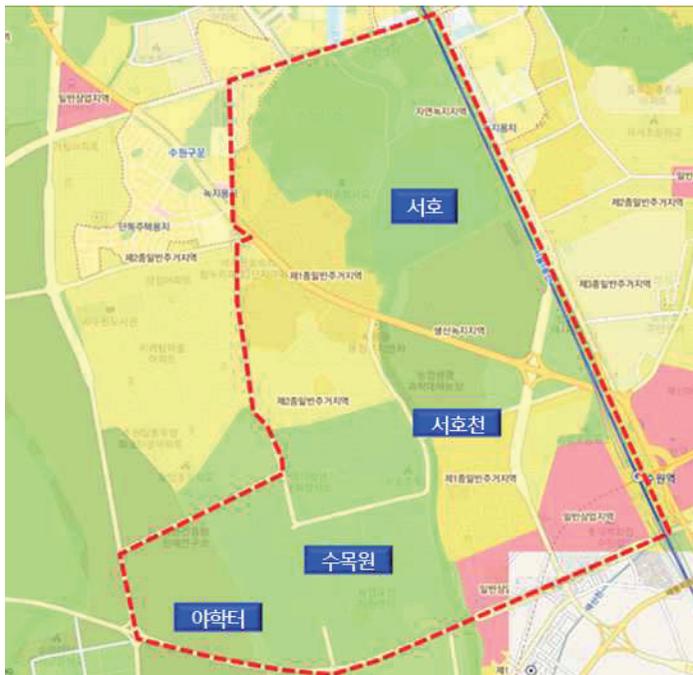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수원역의 많은 유동인구를 서측으로 파급할 수 있는 방안과 잊혀져 가는 수원의 근대문화를 살리고 수원역 인근에 집중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하는 풍부한 유동성을 수원역 서측지역으로의 유입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간적으로는 행정구역상 서둔동 일대로, 서호공원과 서울대 수목원 등을 포함하는 구역이다.

〈그림 1-5〉 연구 대상 범위



대상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도심 인접 불구 미/저개발
- 근대 역사문화자원 다수 산재
- 자연환경 양호
- 종전부지, 도시재생 등 도시정비 기대

내용적으로는 지역개발에 있어 고밀개발보다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생태환경 자원을 유지보존해 가면서 지역 거주민의 생활을 함께 연계한 에코뮤지엄 형성 측면의 지역정비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생태/자연 자원, 역사/문화 자원, 도시/건축 자원, 지역활동주민 조직 등 지역자원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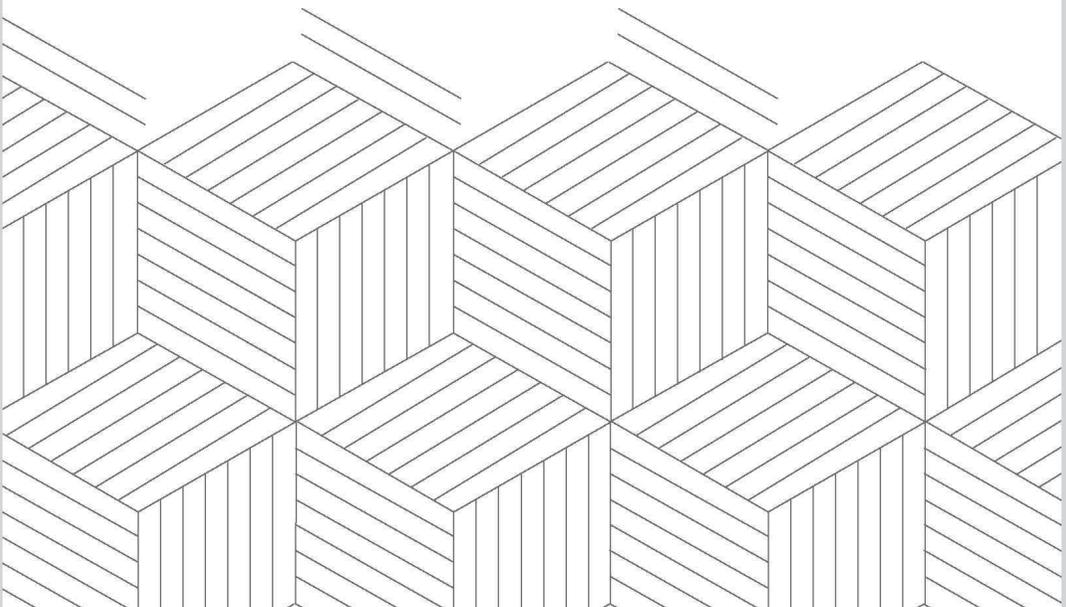
해당 자원들의 가치와 지역개발 방향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활동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연구방법은 지역자원 조사는 문헌 및 히어링,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행하며, 지역자원 및 지역정비방향 등에 대한 가치판단은 시민계획단 지역회의 활동 및 원탁토론회와 연계하여 수행한다.

# 제2장 에코뮤지움 이론과 실제

제1절 에코뮤지움의 의미  
제2절 에코뮤지움 사례와 계획 점검요소





## 제2장 에코뮤지움 이론과 실제

### 제1절 에코뮤지움의 의미

#### 1. ‘에코뮤지움(지역생태박물관)’ 용어의 등장

스웨덴의 해즐리스<sup>6)</sup>는 황폐화되어 가고 사라져 가는 농촌의 보전을 위하여 마을 전체를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해 전시하려는 구상을 했는데, 농촌공동체 보전을 위한 이러한 구상이 박물관학에서 받아들여졌고, 더욱 발전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에코뮤지움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다. 당초에는 에코뮤지움이라는 통일된 용어는 없었고,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대부분이 야외 박물관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과 지역성(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 박물관과는 구별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이정환, 2015).

1960년대 후반에 국제박물관 회의(ICOM)의 초대 디렉터였던 리비에르(G. H. Rivière)가 그 개념을 제창, 추진하였다. 에코뮤지움 용어는 유그 드 베린(Hugues de Varine)이 고안한 에코뮤제(écomusée)의 영어번역으로, 1971년 제9회 국제박물관회의 석상에서 공표 후 세계 각지에서 소개되어 지역에 맞게 전개되고 있다. 리비에르가 정립한 개념에 따르면, 에코뮤지움은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환경, 사회환경의 발달과정을 역사적으로 탐구하여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현지에 보존, 육성, 전시하는 것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이념을 가진 박물관이다.(新井重三, 1995)

즉, 유·무형의 유산을 현지에서 보존, 전시, 관람행위를 이루어가도록 유지 및 관리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는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이다.(大原一興, 1999)

에코뮤지움은 기존의 박물관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특정한 수집품을 모으고 관리하여 관람객이 관람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자체 또는 커뮤니티에 분포하고 있는 유산이 보존되고 커뮤니티 구성원이 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기존 박물관과 차이가 있다.

6) Artur Hazelius(1833~1901) : 스웨덴 출신의 교사이자 민속학자. 스톡홀름의 노르딕(Nordic) 박물관과 스칸센 야외박물관(open-air museum)의 창시자

기존의 박물관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수집품을 수집하는 장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에코뮤지움은 커뮤니티와 그에 참여하는 외부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획자, 문화예술가, 전문가가 결합하여 창조적 대안을 만드는 주체이다(김성균 외, 2016).

즉, 에코뮤지움은 지역의 생활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필드를 활용하여 그곳에서 보존하고 모으거나 이동하는 노선 등을 포함하여 점재하고 있는 것을 연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외 주민들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주체적 역할을 하며, 주민과 지역 외 주민이 방문하고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박물관과는 차이를 보인다.

〈표 2-1〉 기존 박물관과 에코뮤지움의 차이

구분	기존 박물관	에코뮤지움
대상	고도화/전문화된 문화	그 지역의 생활 자체(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억으로서 남은 문화유산이나 소프트웨어도 포함)
장소	건물을 새로이 건축, 수집/수장품을 건물/시설 내에 넣음	필드를 활용하여 그 곳에 보존, 모으거나 이동하거나 하기 위한 건물을 새로이 필요로 하지 않음(이전하는 경우는 가능한 현상보전) 점재하고 있는 것을 연계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주체	학예원 등 전문가의 관리 하에 보존/전시	주민/지역 외 주민: 학예원 등 전문가가 주역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역
이용	일반대중에 의한 수동적 이용	주민/지역 외 주민이 방문, 활용함

## 2. 에코뮤지움의 구성요소

에코뮤지움은 국가·사회적 유산(Heritage), 참여(Participation), 박물관 활동(Museum)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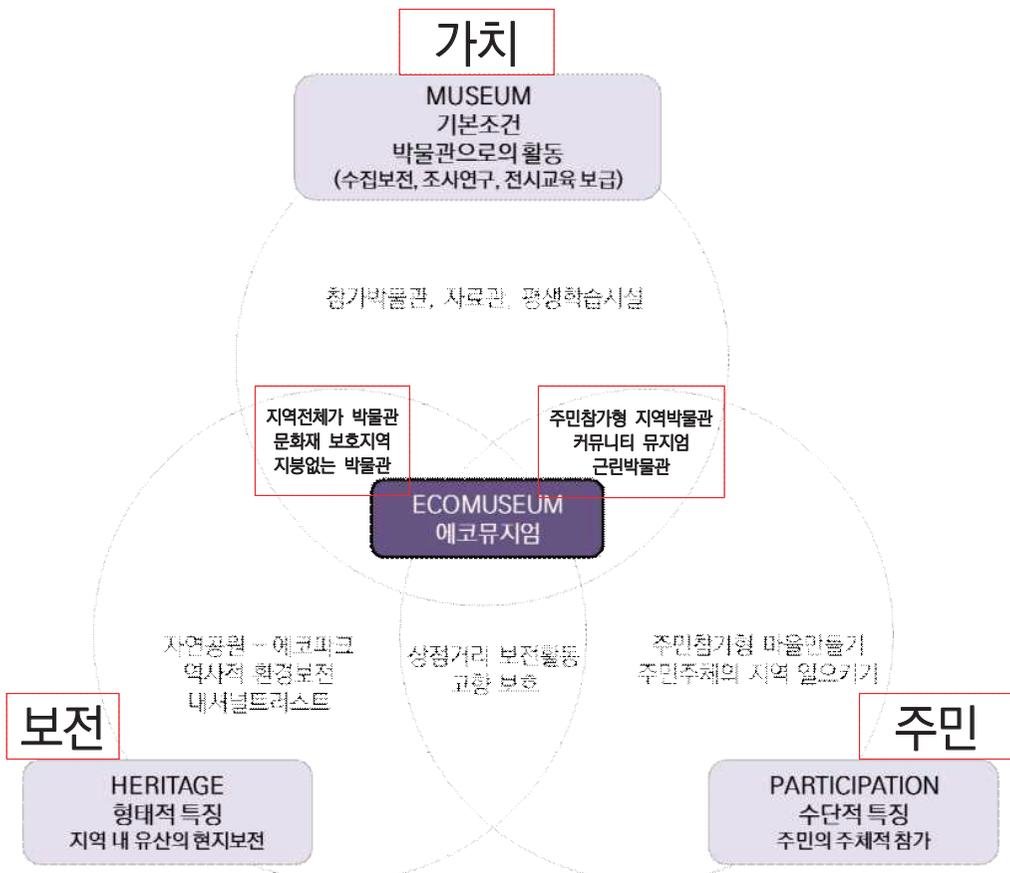
국가·사회적 유산(Heritage)은 에코뮤지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 유산이란 커뮤니티 단위에서 보존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산업유산 등을 의미한다.

참여(Participation)란 참가, 가담, 관여, 협력을 의미하고, 주민참여로 해석되기도 한다. 주민참여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행위이며, 이는 정책 결정에도 연결된다. 그동안 실행은 커뮤니티에서 진행되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은 행정 관료나 전문가의 영역인 경우가 많았으며, 주민은 이미 결정된 의제를 따르는 이행자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했다. 에코뮤지움에서 요구하는 참여는 커뮤니티 구성원이 커뮤니티 유산의 가치를 인식

하고 이를 자신의 주체적 과제로 수용하는 과정이다. 이는 주민권력을 형성하여 주민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 활동(Museum)은 유산과 참여를 전제로 한 활동이다. 에코뮤지움의 박물관 활동은 보전과 연구, 교육과 오락, 공개와 전시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지속성, 커뮤니티 자원의 인류문화적 가치 등의 재구성을 전제로 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김성균 외, 2016).

〈그림 2-1〉 에코뮤지움의구성요소



자료: 大原一興(1999):15

### 3. 서둔동 일대 에코뮤지움 적용 의의

에코뮤지움은 생태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산간지역과 전원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있는 것은, 민가, 다락밭, 과수원, 배후의 잡목림, 개천, 물레방

아, 사찰, 산중에 점재하는 숭가마 등으로, 대부분 생활 수단 그 자체이며, 본래 상호,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 온 것으로, 이제까지의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원래의 문맥을 보존한 채로 수집, 보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일상 생활요소나 그 이용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에코뮤지움의 관점이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의해 지역주민이 에코뮤지움 활동에 관여하는 계기가 되며, 방문자에게도 지역주민에게도 살아있는 생활문화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일본 에코뮤지움 연구회편, 1997).

에코뮤지움은 그 땅의 현재 생활이나 문화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주민 자신이 알고, 타 지역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재확인하고, 깊이 이해를 한다. 나아가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해 가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운용에 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에코뮤지움의 목적이다.

다만, 가령 한 지역의 산업 활동이라도 대부분 글로벌 경제 속에서 사업으로서 성립해가는 것이 제1과제이며, 타 지역으로부터의 자금/이윤의 획득에 의해 산업발전에 까지 연결해 가는 것은 실제로 쉽지는 않다.

중산간지역이나 전원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에코뮤지움을 수원시의 서수원권에 도입, 적용하는 것은 대상지역이 도심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적인 요소들이 현존하고 있으며, 근대역사문화자원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 역사 문화자원들의 가치에 대한 재해석과 관리방안에 대한 고민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근교 지역과 달리 서둔동 일대에 에코뮤지움을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심 지역에서 원래 있던 여러 이용시설, 자연시설, 생활시설들과 주변 환경들을 원래 있는 상태를 보존하면서도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에코뮤지움을 적용하는 초기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도시 재개발과의 도시재생적인 관점에서의 주민참여 및 기존 커뮤니티 등과 연관된 어려움과 일맥상통한다.

도시관리에 있어 행정의 일방적 수행이 아닌 시민활동과 주민참여를 중시해 온 수원시에서는 이제까지 마을만들기,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검토 등의 경험을 축적해 왔다. 지역자원과 주민의 생활이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도시정비를 실현해나가는 에코뮤지움을 서둔동 일대의 도시정비 방향으로 설정, 수행해 나감으로써 수원시 형성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관심, 현대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의 도시관리와 자연생태환경과 인간의 공생 등 수원시의 도시정책을 한층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에코뮤지움 사례와 계획 점검요소

본 절에서는 에코뮤지움의 우리나라의 적용사례 중 도입추진하다 실패한 사례와 거점조성 형식, 지역형 에코뮤지움형식 등을 살펴보고 적용 계획 시의 주요 점검요소들을 정리한다.

### 1. 에코뮤지움 적용사례

#### 1) 도입추진하다 실패 : 태백시 철암동 에코뮤지움 (전문가 주도)

강원도 태백시는 대표적 관광마을로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래, 1993년 철암 최대탄광인 강원산업이 폐광을 하면서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sup>7)</sup>

〈그림 2-2〉 철암의 쇠퇴 현황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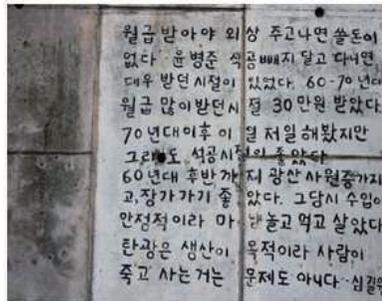
주거  
경관



철암  
역  
선  
탄  
장



쇠  
퇴  
가  
로



7) 태백 기준 인구 3~4만에서 1999년 5,023명, 2010년 3,293명으로 감소, (태백시청 2011년 통계연보)

철암강원도 태백시 철암동에서 쇠퇴되고 있는 옛 탄광촌을 에코뮤지움으로 만드는 계획을 실시하였다.

1999년 수도권 건축가들로 구성된 ‘철암지역 건축도시 작업팀’은 “공동체와 그 사회를 지탱해온 인공 및 자연환경을 정비 복원하고 양자의 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철암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한 일상의 연속가능성을 찾고 그를 통하여 철암의 현실에 더 가까이 서고자 하는” 빌리지움(Village Museum)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 철암지역 도시현황 및 산업문화유산 조사 : 현황조사, 주민의식조사, 건물현황조사 등
- 철암역 선탄장 등록문화재 등록
- 철암콜(coal) 페스티벌 지원
- 철암지역 집짓기 자원봉사
- 「철암세상」 발간
- 철암초등학교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진교실, 생태교실, 건축교실 등)
- 철암어린이도서관 개관 지원

빌리지움은 이와 더불어 교육부분 회생전략 & 예술가 마을프로그램(Artist Residence Program) 등을 함께 계획하고, 예술가들의 지역유입을 유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였다.

- 철암지역 중· 고등학교 미술과 공예 대안학교로 특성화
- 예술가들의 지역유입 유인, 지역유희시설을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철암지역 건축도시 작업팀’은 2000년대 초 중반 빌리지움 활동을 마무리하고, 2001년 설립된 예술가 단체인 ‘할아택’과 함께 협력, 철암그리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림 2-3〉 예술가 단체 활동



그러나 철암에 대한 확신으로 서울의 건축전문가와 기획전문가들로 조직된 철암건축도시 작업팀이 철암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집중 연구하여 2차에 걸쳐 철암주민들에게 철암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전시회 및 설명회를 가졌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주민들에게는 기존의 개발방식이 더 와 닿았으며, 낡고 지저분한 마을의 풍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즉, 문화적인 지역발전론과 전통적인 지역발전론의 대립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태백시와 상당수 주민들은 건축가 집단의 대안에 회의적인 태도와 에코뮤지움에 대한 생소한 비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다.

2006년 태백시는 탄광지역 생활문화복원사업 추진불가 및 4차선 확장사업을 결정했다. 태백시가 추진하는 철암동 중심도로인 2차로 1.02km 구간의 4차로 확장은 철암동을 지속가능한 마을로 회생시키기 위한 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과 지역사회·환경운동가들의 노력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또한, 철암시장을 중심으로 한 거리와 사택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수해를 거듭 당하자 주민들과 태백시가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4차선 도로확장을 조기에 시행하고 철암중심을 흐르는 철암천을 현재보다 10m 더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 한계에 부딪혔다. 철암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4차선 확장 도로계획을 철암을 해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우회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수해방지를 위한 철암천의 확장도 과도한 확장보다는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정리와 하천정비를 통한 수해방지대책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보강공사를 제시해 보지만 일단 주민정서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였다.

결국, 태백시 철암동 지역은 지역내 탄광문화자원을 활용한 에코뮤지움 조성 노력과 활동은 계획에 그치고 실현되지 못하였다.

주된 실패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전문가 집단 주도의 지역발전의 한계
- 인구구조와 사회적 자본의 부재(정주인구의 부족)
- 태풍 루사 및 매미로 인한 수해발생 및 수해방지사업 추진

## 2) 거점 박물관 형식

### (1) 의성군 사촌마을 (행정주도)

경북 의성군 점곡면에 있는 사촌마을은 의성군을 대표하는 유교적 성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양반마을이다. 이 마을은 1390년 경에 지금의 안동시 풍산읍 회곡마을에서 이주한 선안동(先安東) 김씨 김자첨(金子瞻)에 의해서 개촌되었다. 그 뒤에 안동 권씨, 풍산 유씨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정착하였다. 특히 사촌리 가로숲은 서애 유성룡[류성룡]의 어머니가 1542년 사촌리 친정집에 다니러 왔다가 이 숲에서 유성룡[류성룡]을 출산했다는 전설이 전해오며, 천연기념물 제40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마을에는 조선시대에 과거시험 대과에 합격한 사람이 13명, 생진시에 합격한 사람이 31명으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사촌마을의 지역문화를 기반으로하는 지역정비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에 따른 의성 사촌마을 정비기본계획 (2002년 8월)으로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지역내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마을자료관 설치를 언급하고 이에 대하여 1쪽 반의 분량으로 계획의 방향, 동선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을 간략히 적고 있다. 이것이 확대 발전되어 서울에 있는 한 전시회사가 전시관 설립 용역을 수행하여 2006년에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이 개관되었다.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은 마을 입구에 설립되어 있어서 관람객들의 접근이 쉬운 편이다.

〈그림 2-4〉 사촌마을자료전시관 및 문화지도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의 도입부에 “이 전시관은 사촌마을의 민속문화를 조사·연구·보존·전시함으로써 사회교육의 장과 주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올바른 지방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건립된 공공시설이다. 또한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장’과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전시관 설립에 따르는 재원은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비로 충당되었다. 전시관은 단층 한옥형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로, 그 면적은 모두 115.0m(34.5평)인데, 전시실이 100.0m(30평)

이고, 수장고가 15.0m(4.5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시 작업은 90일에 걸쳐 완료되었으니 대단히 짧은 기간에 마무리가 된 셈이다.

요약해 보면 의성 사촌마을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의성군이 추진하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99년 9월부터 2000년 2월에 걸친 학술연구용역 『경북북부 유교문화 관광자원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의 유교문화자원을 확인하고 2000년 마을별로 ‘마을역사문화전시관’ 설립이 제안되었으며, 2002년 의성군이 발주하고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에 따른 의성 사촌마을 정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서울에 있는 한 전시업체가 전시관 용역을 수행하여 2006년에 사촌마을전시관을 개관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성 사촌마을은 행정주도의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전시 및 교육 거점조성사업으로 에코뮤지엄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지역 문화자원의 가치와 그 보전방법만 고려되고 지역주민 생활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 (2)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행정지원 +주민주도)

전북 진안군 동향면에 있는 학선리는 봉을곡 마을(봉곡마을+을곡마을)과 새울마을로 이루어졌다. 봉을곡 마을과 새울마을에는 각각 이장이 있다. 2010년 학선리는 100여 호의 예사농촌으로 보이며, 봉곡마을에 교회가 있다. 학선리에는 초등학교 3년제 분교가 운영되다가 폐교되었다. ‘학선리 마을박물관’은 이 초등학교 폐교사에 만들어져 있는데, ‘진안군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기여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기여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제1차 사업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안군으로부터 350만원을 지원받아 ‘학선리 마을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12월 8일에 개관한 것이다. 개관 이후 기증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10년에는 제2차 사업으로 진안군으로부터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자료관을 만든 이재철 관장은 서울에서 ‘민중목회’, ‘빈민교회’ 활동을 하다가 학선리 봉곡마을로 귀농·귀촌하여 마을 어른들로 부터 영농법을 배우고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2006년 마을폐교를 활용하여 마을박물관 설립하였다.

이곳에는 행복한 노인학교 운영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수집하고 관련 이야기들을 기록 및 전시되어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노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전시실은 외부에서 관람객이 찾아올 때,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박물관에서 자체로 행사를 할 때 개방하고 있다(배영동(2011)).

학선리 마을 박물관은 크게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치며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 1단계 : 2009년 4월부터 개관까지의 초기 단계이다. 이 시기는 자료 수집과 기본적인 전시실 조성 작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동년 12월 8일 행복한 노인 학교 5학기 개강식에 맞추어 개관식을 가졌다.
- 2단계 : 2010년 ‘진안군 귀농·귀촌인 지역 사회 기여사업’ 2차 사업으로 전라북도 진안군으로부터 35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된 시기이다. 개관 이후 기증품이 증가하여 전시물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마을 박물관 리플릿, 입간판, 현판 등을 만들었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스토리텔링 작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시기이다.
- 3단계 : 학선 분교 내 전시실을 이전하여 재개관한 시기이다. 초창기 전시실의 습도 및 활용 방안의 변화로 입구 첫 번째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한 것이다. 박물관 견학 및 방문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그림 2-5〉 학선리 마을박물관



박물관의 구성은 폐교 교실 3칸 중, 1칸은 전시실, 나머지 2칸은 행복한 노인 학교 교실로 이용하고 있다. 박물관 전시실은 상시 개방되어 있으며, 요청을 하면 설명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정된 공간이기에 전문적인 전시 방법이라기보다는 ‘농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생애와 삶’에 초점을 맞춘 진열 방식이다. 전시된 자료는 주로 학선리 주민들이 생활사 자료로 농기구·복식·조리용구·의례용품·문서·사진 등과 같이 주민들이 사용하던 것, 만든 것, 구입한 것, 작성한 것, 기념으로 보관하던 것들이다.

박물관 운영은 학선리 마을 박물관 운영 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이재철이 관장으로 주된 임무를 맡고 있다. 주민 주도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학선리 마을 박물관은 외부 관광객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박물관이자 복지 시설 및 문화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복한 노인 학교와 연계하여 짚풀 공예반과 마을 박물관 이야기반, 서각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야기반은 전시 자료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 있으며 구술사를 정리한 문집도 발간하였다. 개관 후부터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이나 마을 만들기 벤처 마킹을 위해 외부에서 찾아오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 (3) 사촌마을과 학선리마을 비교

사촌마을과 학선리마을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사촌마을자료전시관과 학선리 마을박물관 비교

	사촌마을자료전시관	학선리 마을박물관
설립 유형	행정 주도형	주민 주도형(귀농, 귀촌인)
개관년도	2006년	2009년
건물	전시관 성격에 맞는 신축건물	폐교 재활용(리모델링x)
사용재원	의성군 유교문화권개발사업비	진안군 귀농 귀촌인 지역사회 기여사업비
사업비	고액 (수억원)	소액 (850만원: 2010년분 포함)
관리운영자	사촌마을	이재철 부부
전시기획, 연출	서울 소재 전시회사	"
전시기본계획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운영형태	외부 관람객 방문시 개관 (열쇠를 이장이 관리)	" + 농한기에 는 행복한 노인학교 운영
전시의 개념	600년 역사의 양반마을 자랑거 리 홍보	세기 생활 유물을 활용한 농 20민의 삶에 대한 정보 보전
전시물의 성격	복사, 복제, 영상	실물, 접사 촬영 사진
전시목적	대외 홍보 : 선조기념, 마을홍보, 관광자원	마을 주민용: 무명 농민의 삶 반추, 기억, 생활상 보존
주요 전시내용	마을 역사, 인물과 행적	가족생활, 마을생활, 일생의례
공간구성	전시실, 수장고, 관리실	전시실, 한글교실, 공예교실 등
전시 대상 시기와 계층	조선시대 중심. 양반 중심. 해방 이후 주민 배제	20세기 중심. 해방 이후 농민이 주요대상.
전시의 방법	설명패널, 복제품을 이용한 체계적 전시. 전시의도를 설명문과 전시매체로 전달	비체계적인 진열, 설명패널 없음. 전시효과는 관람자의 느낌에 맡김
대표적 전시물	뛰어난 인물에 대한 영상전시	평범한 농민의 생활용품, 앨범, 앨범속 기념 사진
전시환경	적절한 조도, 깨끗한 환경, 전시 전문 공장제 진열장	최소한의 전시환경, 진열장 없음
효과	마을자랑	농민의 삶, 애환, 고난, 정서의 응결 공간/ 고향을 느끼는 공간/ 부모를 느끼는 공간
전시실 개방시기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만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박물관 자체 행사를 할 때, 주민이 필요 로 할 때

자료: 배영동(2011) 참조

학선리 마을의 경우는 사촌마을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이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내 건축자산을 활용하여 초기 기획과정부터 주도적으로 참여, 제안하였으며, 지자체의 정책사업을 활용하여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정비 면에서 보면 학선리 마을박물관도 비록 주민주도로 이루어졌으나 정책사업대상 및 목적에 의해 해당 지역주민들 중 대상지역의 기존 거주민들이 아닌 새로이 귀촌, 이주해 온 사회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고, 지역 거주민들의 생활공간과의 연계된 전시보다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현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거점구성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두 사례는 에코뮤지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례로 에코뮤지움 조성 시 점검요소 측면에서, '가치'에 대한 발굴과 공유, 그리고 그 '보전'은 중시되었으나 '주민'과의 연계면에서는 주민참여 측면에서만 다루어 졌고 계획기준에 있어 주민생활과의 직접적 연계 등은 두 사례 모두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 3) 지역형 에코뮤지움

#### (1) 통일촌,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행정지원 +경기문화재단주도 +주민참여)

마을이름이 그대로 특화 브랜드인 통일촌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서부전선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자리 잡은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내 마을로 군사분계선 남방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전쟁 전에는 이 마을을 중심으로 민씨, 최씨, 박씨, 이씨 등 집성촌이 있었던 지역이다. 1973년 8월, 분단으로 인해 떠나야만 했던 고향으로 80호가 입주하여 지뢰와 철조망으로 각인된 DMZ 인근에서 분단 이전 고향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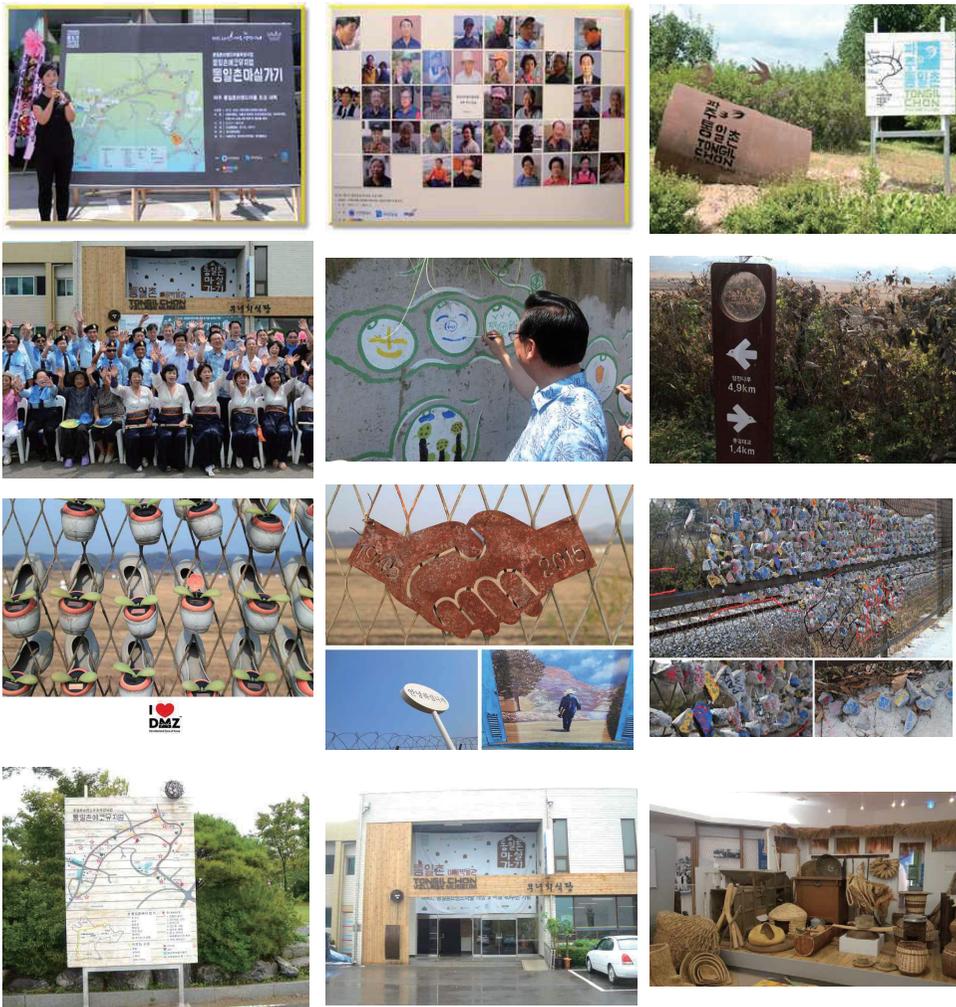
통일촌이 건립되기 전 1972년 1사단 사병과 부사관들이 수넛벌 인근의 땅을 개간하여 부대명을 따서 '전진농장'이라고 불렀다. 이후 1972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의 적십자 전방사무소 순찰시 "재건촌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략적 시범농촌을 건설하라"는 특별지시가 내려졌고, 1973년 8월에 통일촌이 건립되었다. 첫 입주자는 제대 장병40호, 지역 원주민 40호로 제한되었다. 통일촌 건립 당시 이스라엘의 키부츠 촌을 본 따 낮에는 일을 하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이 마을은 통일 정보화마을, 장단콩 슬로푸드 체험마을, DMZ세계화브랜드마을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평화통일의 거점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경기학연구센터, 2013).

통일촌은 군사적 긴장지역으로 인해 자연생태 환경이 매우 양호하게 유지되어 있으며, 한국전쟁의 상흔을 담은 군사시설 및 폐허 등 역사자원이 풍부하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민통선 지역과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관광 상품화한 곳이다.

통일촌 정비에 에코뮤지엄을 적용하게 된 계기를 보면 2012년 안전행정부의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되어 6억원을 지원받으면서 마을을 새롭게 가꾸어나 가게 되었다.

거점으로서의 마을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마을과 지역 자원 등을 잇는 탐방로 등이 새로이 조성되었다.

〈그림 2-6〉 통일촌 주요 요소



지역내 한국전쟁의 기억을 담고 있는 옛 방공호를 활용하여 미술관으로 새로이 단장하고

벽에 포탄을 붙이는 등 휴전상태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 등이 설치되었다. 자연자원과 철책 등 군사분쟁 상황을 느낄 수 있는 탐방로 곳곳에는 벽화와 조형물, 태극기 길, 빨간 우체통 길 등이 구성되어 있다. 마을 모습과 분위기가 이전과 확연하게 변모하였다.(국민일보, 2013)

한편 주민생활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함께 2012년 7월부터 통일촌에 주민생활사를 담은 박물관을 조성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브랜드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8월 14일 ‘통일촌 마을박물관’을 개관하였고, 통일촌 에코뮤지엄은 2013년 김지옥<sup>8)</sup>에 의해 ‘통일촌 마실가기’ 운영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추진되었다.

2013년 8월 14일 오전 11시 통일촌에서 브랜드마을 개장식과 함께 마을 입주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한 통일촌 브랜드마을 육성사업 통일촌 에코뮤지엄 ‘통일촌 마실가기’를 주제로 마을박물관 개관식과 마을 탐방로 개장,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잔치를 개최하였다. 통일촌 브랜드마을은 2012년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한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마을의 역사와 주민의 삶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마을박물관을 조성하고 구 방공호를 정비하여 관광 상품화하였고, 마을길에는 통일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위험한 놀이터’, ‘등지 전망대’, ‘된장공장벽화’ 등의 조형작품을 설치하였다.

통일촌마을박물관은 경기도와 파주시가 추진하였으나 에코뮤지엄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기문화재단의 관련 담당자의 주관하에 통일촌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 전문가들의 참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통일촌 주민들에 관한, 통일촌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를 위한 에코뮤지엄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가치와 보전, 그리고 주민 모두를 고려하였으며, 계획적으로는 통일촌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자산을 순환하는 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역전체를 그 모습 그대로 감상하게 하는 수법이 돋보인다. 다만, 통일촌이라는 입지특성상 군사적 한계상황으로 인해 단일 탐방동선에 거주민들의 일상적 삶과 방문객들의 어우러짐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다.

## (2) 구림역사문화 빌리지,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행정+이화여대박물관 계기 + 주민주도)

구림역사문화 빌리지는 구림마을을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하면서 붙인 브랜드이다.

구림마을은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에 위치한다.

8) 김지옥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팀 팀장, 민속학자. 2013년 DMZ 통일촌브랜드마을 육성사업을 총괄 기획, 추진했다. 경기도문화재전문위원, 남양주·안산·수원·광주 등 시군지 편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수원박물관·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 자문위원, 광주·수원·연천 향토유적위원 등을 맡고 있다. 「경기 민속지」, 「경기도 사람, 경기도 이야기」, 「용강리 마을지」, 「봉안 마을지」, 「통일촌 마을지」 등을 발간했다.

구림마을은 유서깊은 마을로 물리적으로는 2200여년전 선사시대 가마터 유물에서 시작하여 1600여년전 일본에 학문을 전파하고 일본 왕의 스승이된 백제의 '왕인박사', 고려태조의 탄생을 예언한 '도선국사', 그리고 왕건의 책사였던 최지몽이 태어난 마을이다. 구림이라는 지명도 도선국사의 출생<sup>9)</sup>과 연관되어 구림(鳩林)이라 하였다.

구림마을은 우리나라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시원이 되는 황토자기, 최초의 시유도기의 발상지이다. 선사 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황토자기 전국 보급, 해상을 통한 중국, 일본과 교류 흔적들과 가마터, 유물 등을 활용하여 구림역사문화 빌리지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2-7〉 구림마을 주요 요소



지역의 주된 역사문화 자원은 다음과 같다.

- 회사정, 국암사, 담숙제 등 12개의 누정과 전통가옥, 돌담, 고목나무, 노송

9) 최 씨 성을 가진 처녀가 빨래를 하다 물길에 떠내려 온 외(오이)를 먹고 아이를 가졌다. 이를 부끄럽게 여겨 아이가 태어나자 숲 속 바위에 버렸는데, 사흘을 지나 찾아가니 비둘기들이 보호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도선국사다. 그래서 비둘기를 뜻하는 '구(鳩)'와 숲을 뜻하는 '림(林)'을 써서 구림마을이 되었다., DAUM 백과 영암구림마을

- 조선시대 전통 조경유지, 조선시대 마을길
- 백제 왕인박사, 신라말 도선국사, 고려초 최지몽 배출
- 가곡 ‘ 기다리는 마음 ’ : ‘월출산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 마을의 안녕을 위해 주민들이 매년 올리는 당산제
- 500년 전통의 대동계

구림역사문화 빌리지는 현대적인 하정우미술관과 전통적인 영암도기박물관을 거점으로 조성하였고, 지역내 산재해 있는 전통 가옥과 정자, 돌담, 숲, 그리고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스토리 등을 기념하는 기념비 등을 이어 에코뮤지엄을 조성하였다.

지금도 마을의 대동계가 모임장소로 활용하는 죽림정은 조선시대 김수항, 송시열, 김창집이 쓴 현판과 편액 등이 보존어 있으며, 이순신 장군의 서신 사본도 전시되어 있다.

특히, 대표 거점의 하나인 영암도기박물관은 지역내 도자기의 역사를 밝힌 이화여대박물관과의 공동연대를 통해 지역내 폐교(구(舊)구림중학교)를 활용하여 조성, 1999년 개관하였다.

1987년 이화여대박물관이 영암군 구림리 구림도기마을 터 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가마터가 국가사적 338호로 지정되면서 영암도기문화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초기에 영암군은 가마터 유적을 현장보존하기 위한 보호각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문화교육 및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본 이화여대박물관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현재와 같은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도기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닌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시실, 도기제작공방, 강의실, 구림도기연구소, 자료실, 시청각 강의실, 야외공연장, 뮤지엄카페, 문화상품점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물도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되었다.(임학순 외 5인, 1999:106)

도기제작공방은 관람객의 참여가 가능하게 개방적으로 운영되며, 직접 흙 밟기, 푼메로 쳐서 흙다지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고, 전통방식의 물레를 돌려볼 수 있다. 도기소성가마도 갖추고 있다.

도기박물관 이후 이어진 다음단계 프로젝트는 전통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마을인 구림마을 전체를 생태민속마을을 주제로 에코뮤지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전체를 박물관화 하는 것을 최종결정한 것은 영암군도, 이화여대박물관도 아닌 마을 대동계의 어른들이었다. 마을의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개발을 원했을 지도 모를 이곳 주민들은 한달이라는 긴 시간동안 심사숙고 끝에 보존을 결정하였다.(김홍남,2005:109)

한국 전통의 조경양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구림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이어지면서 전통 선비촌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을로 탈바꿈하였다. 구림마을이 전통마을로 거듭나는데는 재

산권 제약을 감수한 주민들의 노력이 뒤따랐다. 호남 유학의 중심지였던 구림마을의 안내는 유림단체가 맡고 있어 유서깊은 지역의 정취를 더욱 강하게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요즘도 한자교육이 필수과목이 되고 있다.

한편, 지역내 민박집들은 지붕을 한옥으로 개조하였다.

### (3) 경기만 에코뮤지움

경기만 에코뮤지움 사업 추진은 경기도지사와 안산과 화성, 시흥 등 3개 자치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경기만 에코뮤지움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소속의 경기창작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경기만 에코뮤지움 홈페이지).

각 지자체는 우선 2018년까지 71억2천여만원(도비 29억5천만원, 안산시 11억2천500만원, 화성시 19억2천만원, 시흥시 11억3천만원)을 들여 에코뮤지움 관련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인문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도는 경기만 일대 가볼 만한 곳 100곳 선정, 사이버 인문 지리지 제작, 관광 상품화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창작센터 내 선감학원의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 에코아트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나섰다.

〈그림 2-8〉 경기만 에코뮤지움 거점센터



면사무소 : 안산 구 대부면사무소



안산 선감역사박물관



화성 제부도 아트파크



화성 매항리 스튜디오



시흥 소금창고

자료: 경기만 에코뮤지움 홈페이지

안산시는 대부면사무소에 에코뮤지움 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마을 축제 시범사업, 거리정비 사업, 해솔 6길 정비 및 명소화, 대부도 생태마을 조성, 누에섬 생태·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계획하였으며, 화성시는 제부도 명소화에 나서고 매항리 평화생태 콘텐츠

발굴 및 스토리텔링 개발 등을, 시흥시는 갯골생태 공원 생태예술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어린이 생태 놀이터 조성·운영, 독자적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연합뉴스, 2016).

경기만 에코뮤지엄의 행정조직은 에코뮤지엄 관련 각종 사업 심의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민관협동 기구로서 경기만 에코뮤지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들은 에코뮤지엄 관련 공모나 제안사업 등의 승인과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에코뮤지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정책적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에코뮤지엄 관련 행정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행정 전담주무부서로서 에코뮤지엄사업 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고, 에코뮤지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에코뮤지엄과 관련한 활동 등 양쪽을 지원하는 중간지원형태의 기관으로서 에코뮤지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또한, 지역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에코뮤지엄 사업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조직인 에코뮤지엄 협의회를 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해 논의하며 실무분과 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것 등의 역할을 한다. 이때,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에코뮤지엄 추진주체의 대표, 에코뮤지엄 참여자나 관련 자원봉사활동가,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에코뮤지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적정 비율을 고려하여 20여명 이내로 한다.

경기만 에코뮤지엄의 비전은 연안 생태계와 공동체가 공존·공생하는 아름다운 경기만을 만드는 것으로, 미래의 선물이 되는 유산, 매일 성장하는 주민참여, 삶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림 2-9〉 경기만 에코뮤지엄 비전과 목표



도와 각 시는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한 뒤 성과를 분석하고, 프로그램과 관련한 시설 확충 등에 나설 예정이다.

## 2. 에코뮤지움 계획점검 요소

에코뮤지움은 역사, 문화, 생태 등 지역 자원에 대한 가치인정을 바탕으로 이를 유지보전해 가는 방식의 하나로 해당 자원의 잔존위치를 가능한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가면서 삶과 연계하여 지역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성과 현재성을 증시한 진흥관리형 도시관리 방식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지역을 정비함에 있어 상기와 같은 에코뮤지움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에코뮤지움 기반확인단계에서 조성 및 실행, 그리고 관리 및 홍보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기능과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히 검토되어야 한다.

〈표 2-3〉 에코뮤지움 조성시 주요 검토사항

단계	기능	프로그램
기반확인	지역 자원 발굴, 보존	지역자원의 발굴, 연구
		새로운 지역 자원의 창조 및 활용
	지역 자원 DB구축	지역 자원 등록
		지역 자원 DB 구축
	지역관리 주민조직	주민 공감확대, 계획참여
주민조직 역할 구상·수행		
조성 및 실행	전시 및 체험	코어시설
		시설 및 전시
		관람 루트
관리 및 홍보	지역 자원 관리	지역 및 자원 정보 관리
		자원 보존 및 활용 방안 구축
	지역 자원 홍보	지역자원 정보의 공개
		관광 시스템

양희은 외(2013:73) 수정, 편집

대상지역에 에코뮤지움 조성을 위한 기반확인 단계에서는 지역내에 충분히 가치있는 자원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자원의 발굴과 구 보존, 해당 자원의 등록과 축적을 통한 DB화, 그리고 그러한 자원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갈 주민조직의 발굴·구성이 가능한가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을 어떻게 전시하고 방문객 및 주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거점이 되는 코어시설과 필요시설 및 전시, 그리고 거점과 전시물을 잇는 관람 루트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자원들이 잘 관리되고 보존되며,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연성에 대해 확인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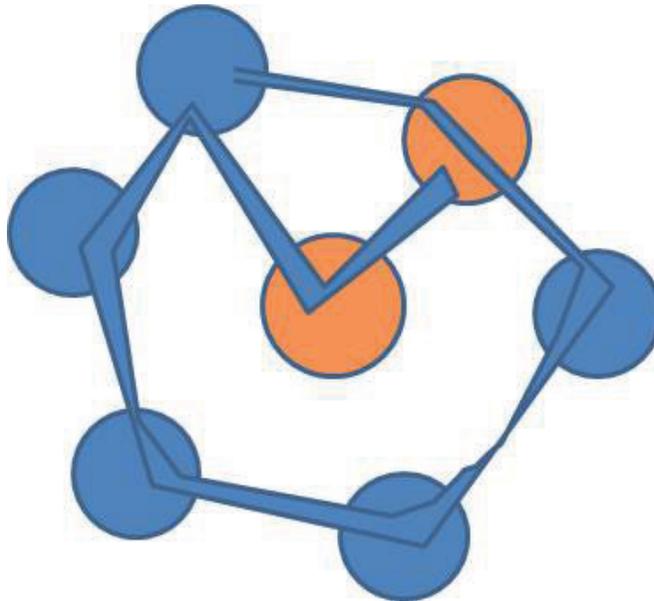
국내 에코뮤지엄 사례를 보면 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조성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존의 박물관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 이루어진 경기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단순한 지역 정비가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재생 관점에서의 에코뮤지엄이 활용되고 있다.

즉, 지역자원과 주민 생활 및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에코뮤지엄 조성에 있어, 필수적인 계획상의 점검요소로서는 공간으로서의 거점(Core)과 체험경로(Discovery Trail), 프로그램으로서의 체험요소(Satelight), 그리고 이모든 것을 경영해 나가는 주민들의 활동(Community Activity)을 들 수 있다.

- 거점(Core) : 지역 안내소 기능을 하는 거점시설
- 체험요소(Satelight) : 현지에 보전되는 전시, 관람, 체험대상
- 체험경로(Discovery Trail) : 거점과 체험요소 혹은 체험요소 간을 연결하고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동동선 (발견의 첩경)
- 주민활동(Community Activity) : 관람 및 체험 지원, 지역 관리

〈그림 2-10〉 에코뮤지엄 공간계획 모식도



이러한 요소들을 연계하여 구성되어진 지역전체가 자원이 된다. 이 모델은 에코뮤지엄의 기본적인 정의라기 보다는 일본 등에서 많이 시행, 채용되고 있는 모델임이다.

다만, 과거와 같이 신사, 절, 명승지, 절경 등의 기존 유명 관광자원을 광범위로 이동하면

서 걸어가며 순회 타입의 관광을 넘어서, 넓은 의미에서의 새로운 현지인 체험형 혹은 현지 체류형 여행 필드가 된다. 이때 지역현장에서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현지인처럼 체험할 수 있는, 거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공생, 교류할 수 있는 거점마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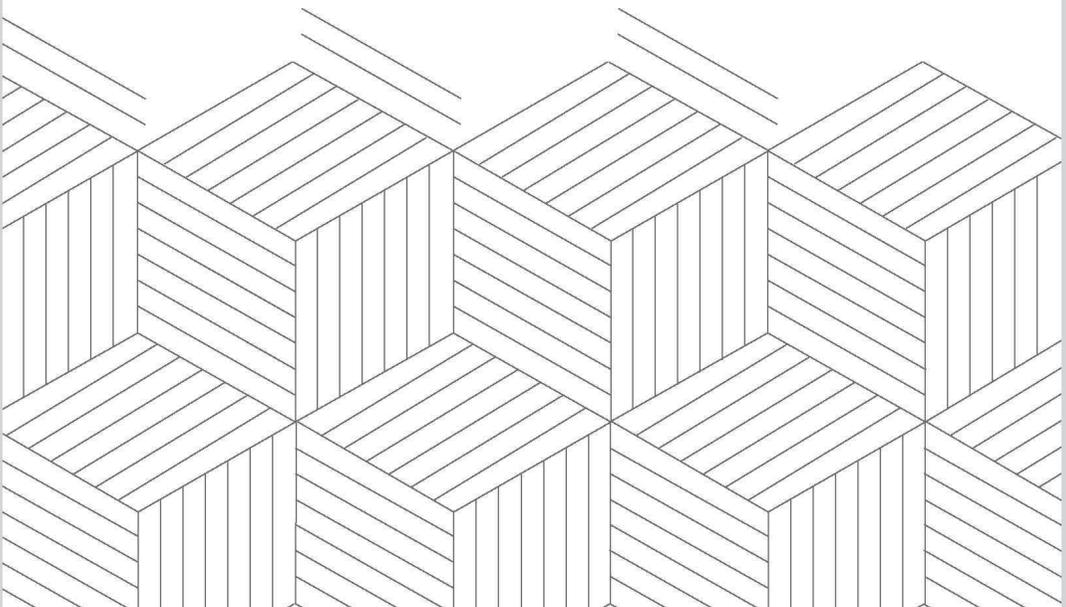


# 제3장 수원역 서측, 서둔동 일대 지역현황·자산

제1절 공간·환경 자원

제2절 주민활동 자원

제3절 지역자원에 대한 가치 확인





## 제3장 수원역 서측, 서둔동 일대 지역현황·자산

본 장에서는 지역자원을 도시건축, 역사문화, 생태자원 등 공간·환경자원과 이러한 자원들을 유지관리해 나갈 주민조직의 형성 개연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활동자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제1절 공간·환경자원

#### 1. 도시·건축

서수원 권역 중 이번 연구대상지역 내 도시건축적 사항으로는 우선 서호를 끼고 조성된 서호공원을 시작으로, 구(舊)서울농대부지를 활용한 경기상상캠퍼스와 따복기숙사가 있다. 또한, 농업역사문화 체험전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탑동시민농장, 수원시 유스호스텔, KCC 부지가 개발 계획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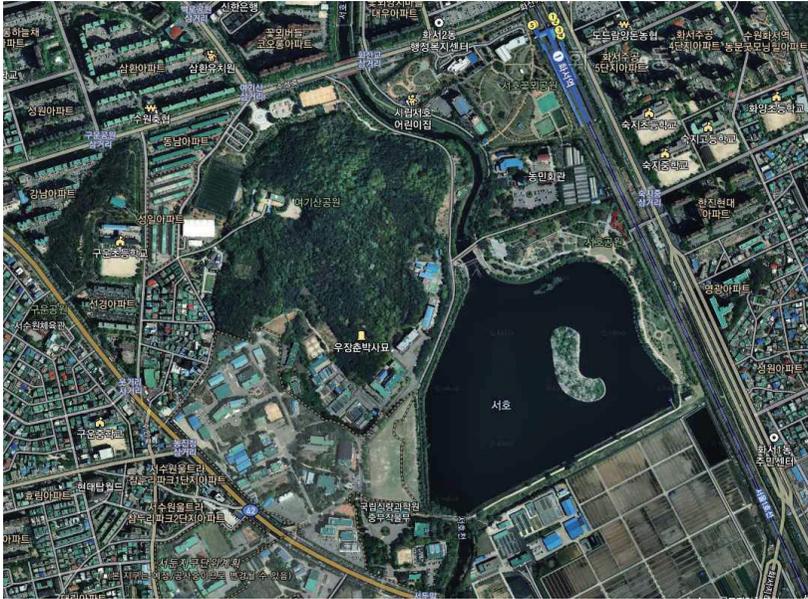
〈그림 3-1〉 대상구역 내 도시건축 요소 위치도



## 1) 서호공원

서호공원(西湖公園)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일대에 위치한 공원으로, 서호천이 유입되는 저수지인 서호(西湖) 주변에 조성되었다. 서호는 원래 1799년(정조 23) 화성을 쌓을 때 축조한 축만제(祝萬堤)였으며,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다(위키백과, 2018).

〈그림 3-2〉 서호공원일대(서호꽃뫼공원, 여기산 공원 포함)



〈그림 3-3〉 서호공원 모습



1996년 서호가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호수 가운데에는 인공 섬이 하나 생겼다. 서호공원을 조성할 때 나온 대량의 준설토로 만든 것이다. 1만2000㎡ 면적의 섬에는 아카시나무, 느릅나무

무 등 나무 수백 그루를 심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겨울 철새 민물가마우지가 찾아오기 시작해 4~5년 전부터 서호 인공 섬에 둥지를 틀었다. 정화작업으로 수생생태계가 살아나 먹이가 풍부해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곳이라 안심하고 살 수 있어 개체수가 급증했다.

2012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서호공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서호공원 62만1679㎡ 중 체육시설, 산책로 등이 조성된 서호 북동쪽 수변 4만3244㎡를 대상으로 박람회장 기반조성공사로 '서호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수원시가 서호저수지 내 인공섬 수목의 백화현상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시한 민물가마우지 서식 실태 조사를 위해 2018년5월 진행한 '서호 인공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둥지 수는 1700여 개였고, 둥지마다 새끼 새 2~3마리가 있었다. 각 둥지를 돌보는 부모새를 감안하면 섬 안에는 모두 800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 시민들의 산책 및 나들이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 2) 농업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농업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은 농업·농촌의 현재·미래 모습 홍보 및 관련 전시·체험·교육 등을 통해 국민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해 상시 소통하는 통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6년 '농업박물관 설립방안 연구' 이후 2015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이의 본격적 절차로서 구체적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3-4〉 농업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조감도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근대 농업의 발상지인 舊 농진청 부지 중 수원시민활동의 지원거점인 더합파크의 북서측에 건립될 예정이며, 대지 5만㎡에 지상2층, 지하1층 등 연면적 1만 8천㎡ 규모로 건립되며, 국비 약 1,073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박물관과 달리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태어날 계획이다. 기존 지역 단위 농업박물관은 근대 이전 농업과 농기구 등 과거의 콘텐츠 전시 위주로 농업역사나 민속자료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업·어업·식품산업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 및 미래의 모습과 가치를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것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의 ‘오래된 농업’만이 아닌 ‘살아있는 농업, 미래의 농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시사매거진, 2016)

수원시는 해당 전시체험관이 수원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성 보전과 농업을 테마로 한 복합 문화공간을 컨셉으로 한 체험관으로 조성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테마전시, 공간배치, 디자인 컨셉 등에서 수원시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 및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장소가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경유하는 장소가 아닌 장시간 체류를 통해 주변상권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 치 : 권선구 수인로 농촌진흥청 일대
- 사업규모 : 연면적 18,497㎡, 본관/별관 2~3층, 공원부지 94,655㎡
- 총사업비 : 1,572억원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수원시로 기부채납
  - 수원시 → 부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 체험관 조성
- 사업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체험관건립추진팀)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
- 주요시설 : 역사관, 첨단농업관, 온실, 다목적회의실 등
- 추진상황
  - 2013년 :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확정 및 농림부와 MOU체결
  - 2014~2015년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검토
  - 2016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 2017.03.~08. : 현상설계공모 및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 2018. 1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전시물 제작·설치용역 착수
- 2018. 4월 : 추진상황 보고회
- 2018. 6월 : 서호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공원조성계획 입안
- 2018. 10월 :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경기도 문화재심의
- 2018. 10월 : 건축허가 접수

### 3) 경기상상캠퍼스

옛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는 2016년 6월 생활문화와 청년문화가 혼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2003년 서울대 농생대의 이전 이후 자연스럽게 생성된 울창한 숲과 자연환경은 경기상상캠퍼스를 문화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그림 3-5〉 경기상상캠퍼스 오픈 포스터



경기상상캠퍼스는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와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삶의 학교’를 지향하며, 폐허로 변한 공간, 낙후된 지역, 무기력한 장소가 되어버린 서울농생대를 생명과 생존,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조성되었다.

〈그림 3-6〉 경기상상캠퍼스



생활1980(구 농원예학관), 청년1981(구 농화학관), 공작1967(구 농업공작실), 경기생생공화국(구 농공학관) 등의 건물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재탄생되었고, 현재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경기생활문화센터, 경기생생공화국에서 모든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캠퍼스로 숲과 이 건물들을 운영 중이다.

경기상상캠퍼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기청년문화창작소’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는 ‘창직’실험과 ‘창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소이다.

특히 새로운 전환시대를 맞이하는 청년세대들이 문화적 실험을 통해 마을, 공동체, 지속가

농성, 자율, 자립, 공생 등의 가치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의 주요 시설로는 경기생 활문화센터, 어린이 책놀이터, 문화허브 카페, 생활예술공방 및 아트숍, 청년창직 실험랩, 다 사리문화기획학교 등이 있다.

또 다른 한 축인 ‘상상공학관’은 지역의 자연과 예술문화를 공유하고 도시재생과 주민 협업 으로 융복합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쓰레기를 쓸 만한 물건으로 다시 만들어 전시하는 ‘쓸애기 전시장’과 하늘장 터, 개를 주제로한 ‘오 마이 도그(Oh My Dog)’, 책 디자인의 역사와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책’ 전, 옛 농생대 흔적 전시관,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쉼터 어울마당’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음브즈매뉴스, 2016)

한편, 경기상상캠퍼스는 경기도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7〉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 포스터 (일부)



〈그림 3-8〉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 모습 (일부)



#### 4) 탑동 시민농장

수원시는 시민농장 조성을 통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상생 발전 도모를 위하여 2019년 12월까지 탑동 시민농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성규모는 11만9635㎡(약3.6만평)이며, 체험텃밭(6만㎡, 1500구좌), 경관단지(4만2035㎡), 교육농장 및 기타(1만7600㎡)로 구성된다. 현재는 대상부지 내 잔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존 가치에 대한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9〉 탑동시민농장(예정)



## (1) 탑동 시민농장 조성계획 일반

- 위 치 : 권선구 탑동 540-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11. 12.~ 2023. 11.11.(5년)
- 면 적 : 119,635㎡(36,253평), 건물 3,416㎡(7개동)
- 소 유 자 : 기획재정부(자산관리공사 관리)
- 사업내용 : 체험텃밭 운영, 경관단지 조성 및 교육농장 운영
- 추진방향
  -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시농업 생태 공간 조성
  -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활력 증진 위한 프로그램 추진
- 근거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제11조

〈표 3-1〉 탑동 시민농장 운영계획

주 소	총면적(㎡)	구 분	면 적(㎡)	사업량	사업내용
탑동 540-2번지 일원	119,635	텃밭	60,000	1,500구좌	개인 텃밭체험
		경관단지	46,635	4~5종	연꽃, 보리, 메밀 등
		교육농장		10개단체	도시농업교육 텃밭 등
		기 타	13,000	-	사무실, 쉼터 창고 등

자료: 2018 탑동 시민농장 조성계획(2108),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

## (2) 세부추진계획

### 가. 시민농장 조성 및 운영

- 기 간 : 2018. 11. ~ 2019.12월
- 사 업 량 : 1,500구좌 / 60,000㎡

〈그림 3-10〉 텃밭체험운영



○ 내 용

- 텃밭체험을 위한 시민농장 구역 조성 2018.11.~12월
- 시민농장 홍보, 접수 및 개장식 2019. 2.~ 5월
- 시민농장 운영 및 관리(모니터링) 2019. 4.~12월

나. 경관단지 및 교육농장 운영

- 기 간 : 2019. 4. ~ 11월
- 사 업 량 : 46,635㎡
- 사업내용
  - 연꽃, 해바라기, 메밀, 보리, 벼농사재배 등 계절별 다양한 작물 식재
  - 농업·농촌 관련 교과과정과 연계 교육농장 운영

〈그림 3-11〉 경관단지 조성 및 교육농장 운영



경관단지 조성



교육농장 운영

자료: 2018 탐동 시민농장 조성계획(2018),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

다. 토지이용계획(안)

〈그림 3-12〉 토지이용계획(안)



자료: 2018 탐동 시민농장 조성계획(2018),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

〈표 3-2〉 세부활용계획

구 분	추진내용
경관단지	A ○ 경관단지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 연꽃 등) 및 잔디밭 조성 및 운영
체험텃밭 (교육농장)	B ○ 체험텃밭 1,500구좌 운영
	C ○ 교육농장 10개소 운영
	D ○ 교육농장 10개소 운영
기타	E ○ 시민농장 주차장 조성 및 운영
	F ○ 문화예술공간(문화예술과), 사무실, 창고, 도로 쉼터, 주차장 등 운영

자료: 2018 탑동 시민농장 조성계획(2018),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

#### 라. 건물활용계획

〈그림 3-13〉 건물활용계획



〈표 3-3〉 건물활용계획

구 분	면 적(㎡)	활용계획	
계(7개동)	3,415.92		
본관A	567.93	○ 사무실, 교육장, 분양상담소 등	농업기술과
육가공실	224.79	○ 본관 창고 및 사무공간	
농기계창고,D	165	○ 농기계, 비료, 농기구 등 보관	
종합실험축사	1,890	○ 예술창작공간	문화예술과
첨단한우사	542.88	○ 예술창작공간	
사일로 1,	19.83	○ 시민농장 포토존 운영	
사일로 2,,	5.49		

자료: 2018 탑동 시민농장 조성계획(2018),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

### (3) 기대효과

- 친환경 생태공간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보존
- 도시농업 체험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 도시생태공간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 5) 따복기숙사

따복기숙사는 경기도 지원 하에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과 취·창업 및 입학생·지역주민 간의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舊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에 위치한 건물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약 149억원의 규모로 진행되는 경기도형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이다.

〈그림 3-14〉 경기도 따복기숙사



2015년 4월 수원시 인근대학(11개 대학) 수요조사 결과 조사대상(520명) 중 32.1%(167명)이 경기도기숙사 신청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경기도는 2015년 4월 6일 경기도와 서울대 간 舊 농생대 부지에 대한 활용 MOU를 체결하고, 2016년에는 사업의 구체화를 위하여 경기도와 서울대 간 상록사 30년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 9월 3일 개원했으며 경기도따복청년협동조합을 창립하는 등 입학생협동조합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2018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건축규모는 기숙사동 지상5층, 식당동 지하1층과 지상1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
- 면 적 : 6,890,98㎡
- 준공연월 : 2017. 8.
- 수용인원 : 278명
- 총사업비 : 149억원
- 건축규모 : 기숙사동 지상5층, 식당동 지하1층, 지상1층

## 6) 수원시 유스호스텔

수원시는 자연친화적 환경과 체류형 관광도시의 자원을 연계한 청소년과 가족중심의 휴식 및 체험활동 공간 및 한국을 여행하는 국내외 청소년들과 도심 속의 자연을 찾는 모든 이들이 교류하고 신뢰하는 글로벌 문화교류의 공간으로서 유스호스텔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5〉 위치도 및 조감도



### (1) 수원시 유스호스텔 일반

-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32, (구)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대지면적 : 26,136㎡ (도시계획도로 제척면적 2,456㎡)
- 연 면 적 : 5,584.44㎡(증축 436㎡, 본관동, 야외무대, 부속동)
- 용도규모 :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44실 180여명 / 1일
- 소요 : 39,710백만원
- 근거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 (2) 주요기능

- 체류형 관광도시 내 유스호스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정보교류와 휴식의 공간
- 가치(價値)있는 호스텔적인 여행의 공간(지역문화체험·교류건물의 넓힘 등)
- 누구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
- 가장 편안한, 깨끗한, 친근한, 환경 영역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간

〈표 3-4〉 추진경과

날짜	내용
2015. 8. 17.	유스호스텔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안) 수립
2015. 11. 3.	공유재산심의회 완료
2016. 5. 2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16. 5. 10.	부지 매매계약 체결
2016. 6. 30.	기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종합 B등급)
2016. 8. 11.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승인
2016. 12. 28.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위원회 심의
2017. 4. 11.	설계 및 공사추진 의뢰(관광과 → 시설공사과)
2017. 11. 8.	수원시 경관위원회 자문
2018. 1. 1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시설인수
2018. 4. 10.	기공식 개최
2018. 5. 10.	T/F팀 1차 회의(공간활용계획, 조례 및 운영계획 논의)
2018. 6. 15.	T/F팀 2차 회의(공간활용계획, 이용률 제고방안 논의)
2018. 7. 20.	T/F팀 3차 회의(공간활용계획, 설비사양 업그레이드 논의)
2018. 8. 22.	T/F팀 4차 회의(공간활용계획 확정, 청소년 의견제시)
2019. 2. 7.	공사준공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표 3-5〉 주요 시설 현황

동별	층별	용도	바닥면적(㎡)
계			5,584.44
본관동	1층	북카페, 창작공방실, 문화체험실, 휴게공간, 다목적실, 양호실, 다목적강당	1,190.62
	2층	사무실, 자치활동실, 세미나실	644.26
	3층	숙소 (11실-장애인 2실 포함)	643.05
숙소동	지하1층	기계실	88.92
	1층	숙소(16실-지도자실 포함), 컨퍼런스홀 1.2, 휴게실	876.13
	2층	숙소(18실)	661.04
식당	지하1층	기계실	549.45
	1층	식당 168석, 자가취사실, 주방	511.14
연결통로			140.97
야외무대	1층	야외무대 및 야외공연장	115.2
부속동	1층	매점, 샤워실, 화장실, 공동개수대, 분리수거장, 급탕탱크실 등	163.66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표 3-6〉 유료시설 현황

층별	기존구성	면적(㎡)	변경시설	비고
숙소동 1층	숙소(4인실)	22.23	유지	
	숙소(장애인전용)	22.23	유지	
	숙소(6인실)	44.28	유지	
숙소동 2층	숙소(4인실,온돌)	22.23	유지	
	숙소(4인실)	22.23	유지	
	숙소(6인실,온돌)	44.46	유지	
본관동 2층	세미나실	84.375	40	프레젠테이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규모 수련활동과 세미나를 운영하는 공간
숙소동 1층	컨퍼런스홀	66.69	30	국내외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국제회의 등 각종 교류 행사를 운영하는 공간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표 3-7〉 객실현황

동 별	층 수	정 원	객실수	수용인원(명)	비고
본관동	3층	2인실	2	4	직원실 1실 포함
		2인실	2	4	장애인 전용객실
		6인실	7	42	
		소 계	11	50	
숙소동	1층	2인실	1	2	지도자실
		2인실	2	4	장애인 전용객실
		4인실	12	48	
		6인실	1	6	
	2층	4인실	17	68	
		6인실	1	6	
	소 계	34	134		
총 계			45	184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 7) 주택재개발사업 해제구역(서둔동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구역)

서둔동 110-1번지 일원은 남측으로 구(舊)서울농대부지에 연접하여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다. 수원비행장의 영향으로 비행기 소음에 시달릴 뿐 만 아니라, 개발에서 소외되어 동수원권에 비하여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절반이상이 건축된지 30년이 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서울농대 이전과 농진청 이전에 따라 지역의 활력이 급속히 저하된 지역이다.

〈그림 3-16〉 서둔동 주택재개발사업 해제구역 주변현황



대상구역은 2006년 9월에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나, 시공자 선정 이후 주민간의 분쟁, 사업지연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결국 2016년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고 동년 12월 23일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 약 10년 동안 재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더욱 슬럼화되고 노후화 되었으며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제출에 대한 찬반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 또한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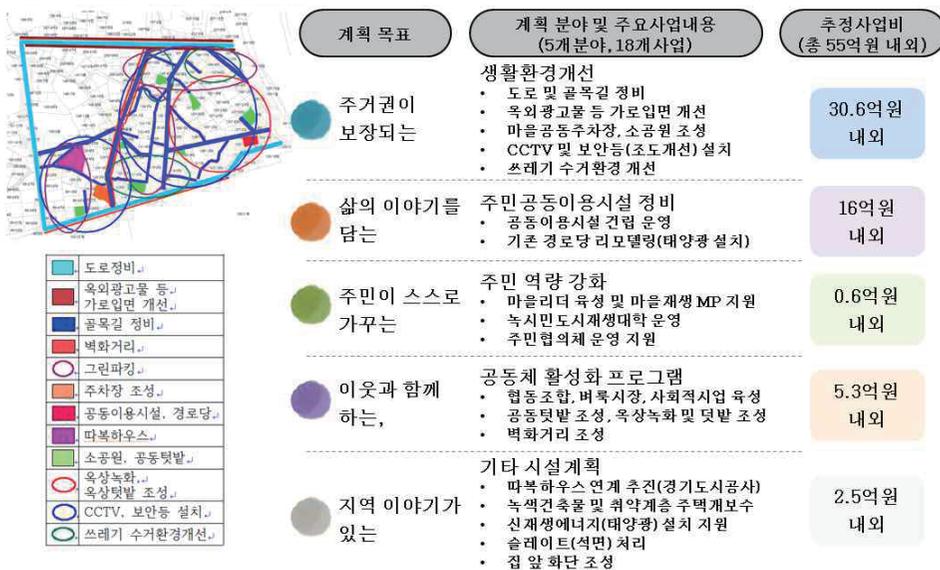
〈그림 3-17〉 사업구역 내부 노후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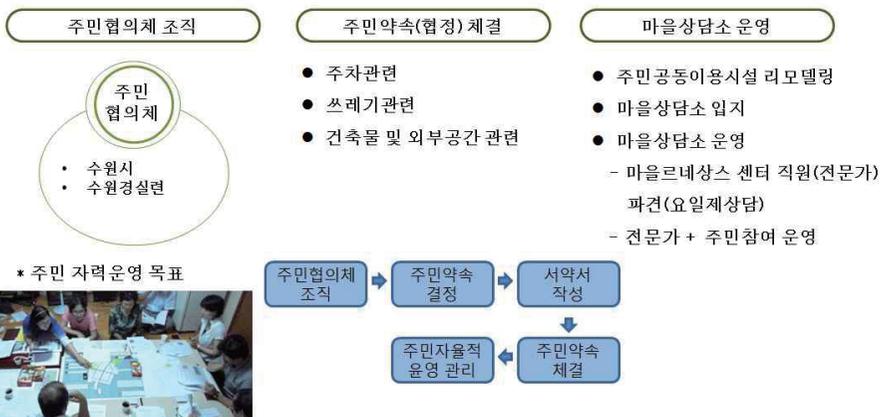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마을의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확충,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응모하였다.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정부 국비지원 사업에 응모 절차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림 3-18〉 주요사업계획안



〈그림 3-19〉 사후관리 및 지속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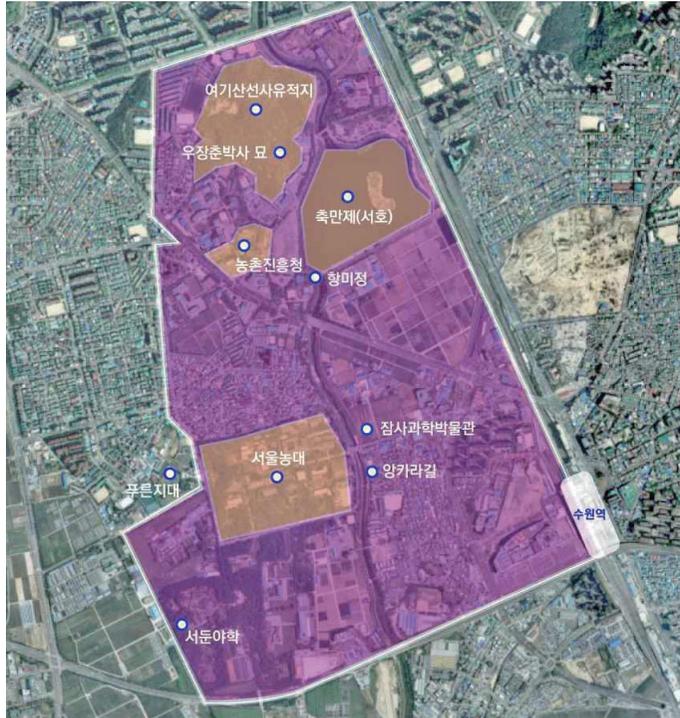


주민협의체 및 주민약속 체결, 마을상담소 운영을 통해 마을의 지속발전 도모

## 2. 역사문화

서수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축만제(서호)를 중심으로 향미정, 권업모범장, 농진청, 푸른지대, 서둔야학, 잠사과학박물관(소실), 앙카라 공원 등의 교육과 역사적 기억, 휴계가 가능한 자원들이 산재되어 있다.

〈그림 3-20〉 서수원 역사문화



### 1) 여기산 선사유적지, 우장춘 박사 묘

서수원 여기산 선사유적지는 2005년 10월 17일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다.

- 종 목 : 경기도 기념물 제201호
- 지정일 : 2005. 10. 17.
-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6-1 외
- 소유자(소유단체) : 수원시 외 9인
- 관리자(관리단체) : 수원시

여기산유적은 서호 서쪽의 구릉에 있다. 이 유적에서는 구멍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청동기시대 집터와 경질무문토기와 두드림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원삼국시대의 집터가 확인되었다.

집터의 시설 중 특징적인 것은 온돌시설의 초기형태라 할 부뚜막이 있는 화덕자리 시설이 확인되었고, 서까래와 벚집 지붕이 조사되어 당시의 가옥구조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생활용구인 토기류와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주거지내부에서 검게 탄 볍씨가 출토되어 서호 일대 주변 저습지대에서 벼농사를 하며 생업을 이어갔음을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수원지방 벼농사의 기원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문화재청).

이 유적에서는 구멍무늬 토기가 출토되는 청동기시대 지벌와 경질무문토기와 두드림무늬 토기가 출토되는 원삼국시대의 집터가 확인되었다. 집터의 시설 중 특징적인 것은 온돌시설의 초기형태라 할 부뚜막이 있는 화덕자리 시설을 비롯하여 서까래와 벚집 지붕이 조사되어 당시의 가옥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 자료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생활용구인 토기류와 철기류 등도 출토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 검게 탄 볍씨가 출토되어 서호 일대 주변에서 벼농사가 일반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선사시대부터 수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지다(수원시, 2017).

〈그림 3-21〉 여기산 선사유적지, 우장춘박사 묘



또한, 이곳에는 녹색 혁명을 이루어 농촌진흥청을 빛낸 김인환, 정남규, 우장춘의 묘가 위치해 있다.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 농학박사이자 세계적인 유전 육종학의 권위자로서 〈종(種)의 합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유전 육종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해방 후 귀국하

여, 일본에 의존하던 채소종자를 국내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종자의 생산 체계를 확립하였고, 채소를 제철에 관계없이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육종 및 원예산업 발전에 공헌하였다. 고랭지를 이용한 무병(無病) 씨감자 생산 및 재배 체계 확립으로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식량난 해결을 주도하였다.

우장춘 박사는 귀국한 지 9년이 되던 1959년 8월 10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가 사망하자 정부는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했고, 그의 장례는 전국민의 애도 속에 윤일선(尹日善)을 위원으로 하는 사회장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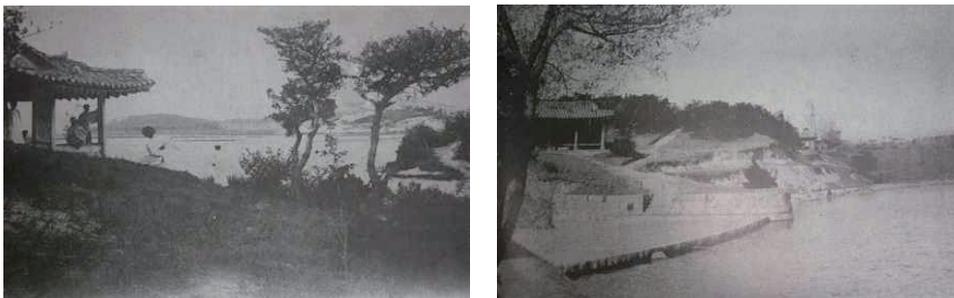
'씨 없는 수박의 발명가'로 익히 알려진 우장춘의 유해는 그가 남긴 농업사의 굵직한 업적에 따라 농업1번지인 수원농사원(현 농촌진흥청) 구내의 여기산(麗岐山)에 안장되었다. 그의 묘역 안에는 추모비와 동상이 건립되어 있고, 매년 8월 10일이면 그가 양성한 제자들과 전국 의 원예인들이 모여 추모의 예를 올린다(수원시).

현재, 여기산은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서 산림자원 및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입산을 금지하여 자연 그대로를 보호하고 있다.

## 2) 축만제(서호)

축만제는 서둔동의 농촌진흥청 북서쪽 여기산(麗岐山) 밑에 있는 저수지로, 수원 화성의 서쪽에 있어 일명 서호(西湖)라고도 불린다. 현재는 농촌진흥청의 시험답(試驗畝)과 인근 논외의 관개용 수원 및 시민들의 쉼터인 서호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20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 3-22〉 일제강점기 서호와 향미정



자료: 서둔동·탑동지(2013), 수원박물관

조선시대 정조는 둔전을 개간하고 1795년 장안문 북쪽에 만석거(일명 일왕저수지)를, 1797년에 화산 남쪽의 사도세자 묘역 근처에 만년제를 축조하였다. 대규모 수리시설과 둔전

개간이 크게 성공하자 ‘농가의 이로움은 수리(水利)만한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1799년(정조23) 화성의 서쪽에 당시로서는 최대의 크기로 조성한 저수지가 축만제이다.

축만제의 규모는 문헌상 제방의 길이가 1,246척(尺), 높이 8척, 두께 7.5척, 수심 7척, 수문 2개로 되어 있다. 제방에는 제언절목(堤堰節目)에 따라 심은 듯 아직도 고목들이 서 있다. 보수관리는 축제 후 4년만에 축만제둔(祝萬堤屯)을 설치하여 도감관(都監官)·감관(監官)·농감(農監) 등을 두어 관수와 전장관리를 맡게 하고, 이에서 생기는 도조는 수원성의 축성고(築城庫)에 납입하였다는 것을 보면 제방 아래 몽리구역(물이 들어와 관개의 혜택을 받는 곳)의 농지는 국둔전(國屯田)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축만제)

〈그림 3-23〉 축만제



축만제의 의미는 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화성 서쪽에 있어 일명 서호로 불리고 있다. 축만제의 가치는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아 2016년 11월 ICID (국제관개배수위원회)<sup>10</sup>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었다(수원시 2017).

### 3) 향미정

향미정은 축만제(일명 서호)에 있는 정자로 1831년(순조 31) 당시 화성유수였던 박기수가 현재의 자리에 건립하였다. 1908년 10월 2일 순종황제가 기차를 타고 수원 능행을 하였을 때, 용건릉 참배 후 서호 임시 정거장에 도착하여 축만제 뚝방길을 지나 향미정에서 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던 유서 깊은 정자이기도 하다(수원시, 2017). 수원시 향토유적 제 1호(지정일 : 1986. 04. 08.)로 지정되어 있다.

〈그림 3-24〉 향미정 현재모습



향미정은 서호의 경관과 풍치를 한층 아름답고 돋보이게 하는 명물이다. 중국 시인 소동파의 시구에 “서호는 항주의 미목 같다”고 읊은 데서 그 이름을 따서 향미정이라 지었다고 한다. 향미정이라는 이름은 석양에 비치는 그림자가 마치 미인의 눈썹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수원문화원).

현재 서호를 산책하는 시민들과 팔색길을 따라 트래킹하는 이들이 한 번씩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용하며, 관광객들을 위한 스탬프가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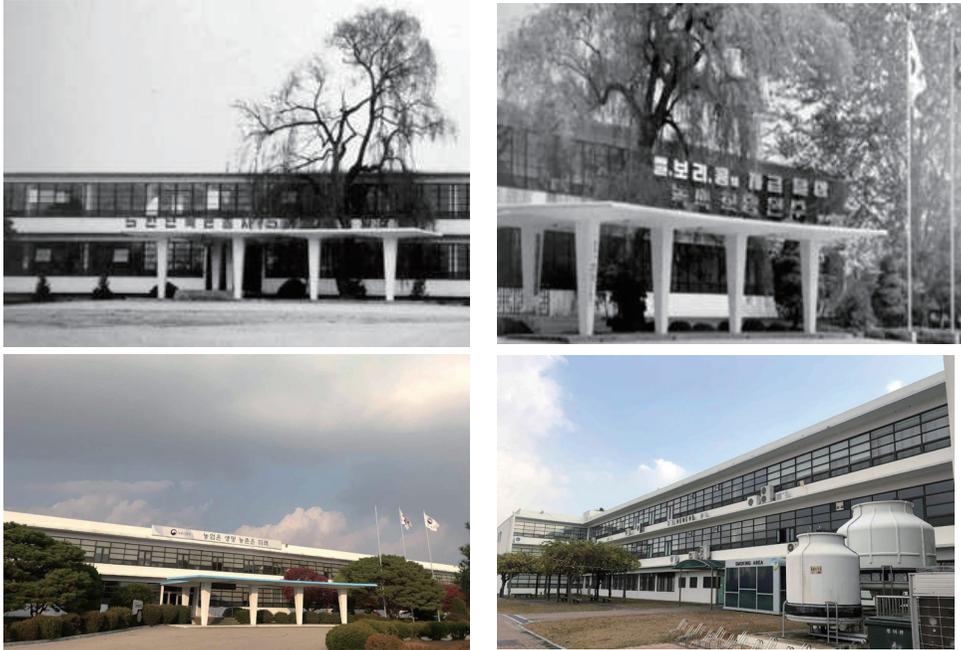
10) ICID는 관개·배수·환경 보존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1950년에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UN경제사회이사회와 유네스코 등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9년 가입하였고, 현재 (사)한국관개배수학회가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ICID 관개시설물 유산은 역사적·기술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관개시설물을 보호하고,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정부의 관심을 끌어 유지 자원을 제공받기 위해 2012년에 제정되었다.

#### 4) 농촌진흥청

농촌 진흥청은 농촌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수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이다. 1962년 4월 1일 농림부 농사원을 개편하여 발족하였다(나무위키, 2018).

〈그림 3-25〉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5천년 동안 입과 손으로만 전해져온 재래식 농법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농법을 개발하고 보급하자는 뜻으로 5월 농진청 청사가 준공되면서 본관 정면에 내걸렸다.

과학농법이 도입되고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970년대, 농진청은 구체적 구호로 국민적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당시 사용한 구호는 ‘쌀·보리·콩의 자급 지속화 - 녹색혁명의 완수’였다. 이 시기 농진청은 가장 화려했다. 1972년 농진청이 개발해 첫 재배를 시작한다수확 벼 품종 ‘통일벼’는 당시 군사정권이 갈망했던 주곡 자급을 혁명처럼 가져왔다.

1980년대를 풍미한 구호는 ‘선진농업 기술혁신’이었다. 주곡 쌀의 자급도가 이뤄짐에 따라 벼농사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요구됐고 벼농사 분야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 기술이 필요해져 처음으로 ‘선진’이란 단어가 사용됐다. 농진청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벼농사와 축산, 채소, 과일 등을 결합한 복합영농의 개념을 1980년대 도입함과 동시에 산업화로 탈농이 가속화되자 농진청은 새로운 구호로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내놓았다.

1990년대 농진청이 내세운 구호에는 '첨단'과 '지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각 작물의 국제 경쟁력이 필수인 상황이 되자 '첨단기술농업으로 제2녹색혁명 성취'라는 구호와 농업을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자는 의미의 '새 기술 지식농업 세계 속의 한국농업'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첫 번째 녹색혁명의 강렬한 기억이 남아 있는 농진청에 제2의 녹색혁명이 절실히 요구됐으나 결국 두 번째 혁명은 없었다.

결국 2000년대 들어 농진청은 큰 시련과 만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는 농업·임업·축산업 관련 연구개발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연구개발은 경직된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로 농진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 농진청이 내놓은 구호는 이미 생명공학의 중요성을 담고 있었다. 당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구호는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였다.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의 생명을 잉태하고 보존하는 첨단 산업임을 강조하는 구호였지만 구호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농진청은 2008년 알게 된다. 2008년 농업인 단체의 요구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폐지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농진청은 여전히 두 번째 녹색혁명을 주문받고 있다 (서울신문, 2014).

수원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로 이전했으며, 현재 농촌진흥청 부지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가 남아 옥수수, 콩, 쌀 등 중부지방에 적합한 작물품종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 종전부지(이전 후 남은 부지)에는 이러한 농업과학의 기억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업 역사문화전시 체험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

## 5) 앙카라길, 앙카라공원

앙카라 길은 한국전쟁 당시 우방국으로 참전해 서둔동에 주둔하면서 전쟁고아를 위한 복지 사업을 펼친 터키군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앙카라길'이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한 곳이다.

한국전쟁 당시 640여 명의 고아들에게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터키군이 자신들의 수도인 앙카라(Ankara)에서 이름을 딴 앙카라 고아원을 설립하여 한국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굶주림에 시달리던 어린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후 터키군이 본국으로 돌아간 1966년까지 14년 동안 운영되다가 없어졌다. 이렇듯 민족상잔의 비극을 고스란히 간직한 앙카라고아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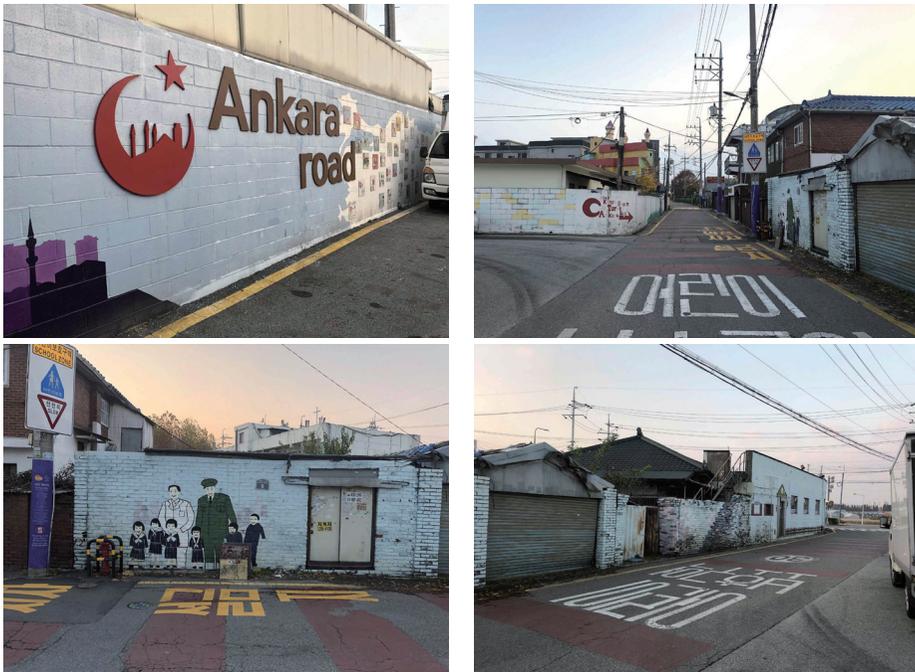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2006년 과거 고아원이 있던 자리에는 건립 기념비가 세워지고, 현재는 서호초등학교 앞 공원으로 옮겨 오고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림 3-26〉 양카라길, 양카라 공원



2013년 대학생 자원봉사단의 재능기부로 약 200m에 이르는 벽화가 곳곳에 조성되었으나 수년이 지나며 변색이 되거나 낙서 등으로 훼손되어 마을 경관에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양카라길 입구 벽면에 서호초등학교 학생의 그림 50여점을 이용한 그림타일 작업과 전체 도색 및 채색벽화 처리 등 정비를 했다.

〈그림 3-27〉 양카라길, 양카라 공원



터키 수도인 앙카라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앙카라 성, 코자테페 모스크, 아타쿨레 타워의 실루엣과 터키 지도 모양의 채색벽화, 그리고 앙카라길의 글자 조형물로 기존의 단조로운 벽화에 다채롭고 의미 있는 변화를 주었다(경기경제신문, 2018).

## 6) 서둔야학

서둔동 야학의 시초는 1908년 농고부 수원수류양성소 기사 김광하가 서둔동민인 유천만의 집에 야학을 설치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1920년대에 접어들어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이 농촌계몽운동에 착수하면서 야학활동이 적극성을 띄게 되었다. 해방 후에도 야학활동은 계속 되었는데, 서둔동과 탑골 등지에서 서울농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야학활동을 펼쳐나갔다(사이다, 동네이야기)

〈그림 3-28〉 서둔 야학터



서둔동에 야학이 최초로 설립된 것은 1908년으로, 농공부 수원수류양성소(水源樹榴養成所) 기사 김광하가 서둔 동민인 유천만(유정렬)의 집에 야학을 설치하였다. 한편 1920년대 수원고농 학생들은 민족운동의 중심을 농민운동에 두고, 농촌계몽운동에 착수하였다. 수원고농 학생들은 1926년 여름 천도교계 조선농민사의 중심인물이었던 이성환이 수원고농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조선농민사 지부를 수원고농 내에 설치하였다. 조선농민사는 조선 농민의 교양과 훈련을 목적으로 표명하며 1925년 10월 설립된 농민운동 단체로, 야학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전하였다. 조선농민사의 수원지부를 학교 내에 설치한 학생들은 이 단체의 활동 중 야학활동에 공감하였고, 농민야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학교 부근인 수원의 서둔리와 고색리에 야학을 설치하고 농촌 청년들과 아동들에게

국문과 산수, 한국역사를 가르쳤으며, 때로는 농촌 인사들을 모아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농촌야학전람회도 개최하여 농촌야학의 성과를 선전하기도 하였다.

야학활동에 참여하였던 수원고농 학생들은 민족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결사체인 조선개혁사 조직을 도모하였다가, 1928년 9월 1일 검거되었다. 이 비밀결사는 1920년대에 전문학생들이 처음 조직한 것으로 수원고농 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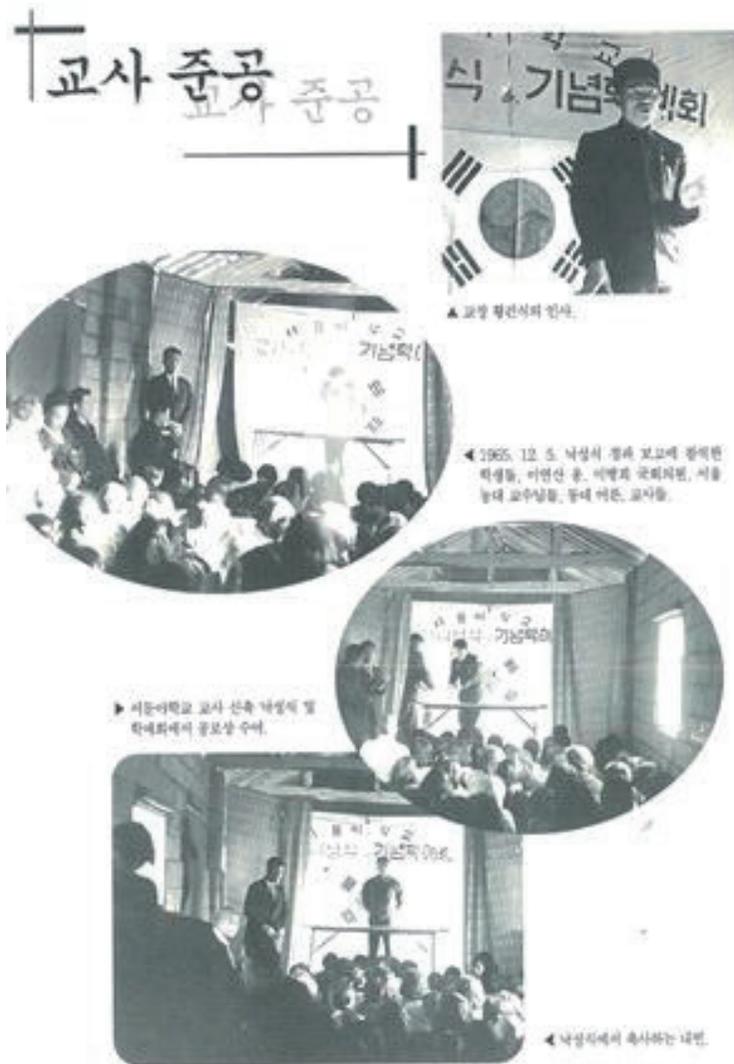
1960년대 서둔야학은 농촌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만들자는 의미에서 출발되었다. 이에 정규학교의 교과를 가르치되, 문학작품을 읽거나 자연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짓는 등의 활동을 통해 참된 삶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자유주의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런 교육과정 속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야학 교사들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둔야학 활동에 참여하였다. 1960년대 초반에는 서울농대의 한 학년에 5~6명, 중반 이후부터는 10~20명이 야학교사로서 활동하였다. 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졸업한 교사와 야학 졸업생이 정기적으로 만나 야학 운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서둔야학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그림 3-29〉 서둔야학 교사 건립 모습



1970년대 들어와 서둔야학의 교육방침은 전환되었다. 1960년대 후반 서둔야학을 졸업한 후 검정고시를 거쳐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사들 사이에 교육 과정에 대한 재편성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공민학교의 혜택이 없었던 서둔야학 학생들은 검정고시에서 9개의 시험 과목을 모두 치러야 했기에, 그에 맞는 수업 운영과 교육 방법을 검토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71년에는 「서둔야학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는데, 서둔야학의 목적과 학년, 학기, 수업 일수 등을 규정하고, 입학 자격과 시험, 장학제도, 포상제도 등에 대해서도 정비하였다.

〈그림 3-30〉 서둔야학 교사준공 기념식



1970년대에는 서둔야학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정착하고 서둔동 지역의 정규학교 취학률이 높아지면서 야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급격하게 줄어 야학 유지에 대한 위기감이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1978년 10월 가을 축제 때, 대학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 서둔야학 교사들이 대부분 참여하였고, 많은 농대 학생들이 구속되거나 도피하는 사태가 일어나 야학에는 가르치는 교사는 없고 배우는 학생들만 학교를 지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신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1980년 신군부가 등장하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서둔야학교는 여러 가지의 위기를 맞게 된다. 1980년 계엄의 확대 발표 후 모든 집회가 금지되어 서둔야학교의 수업도 금지되었다. 교사들은 서둔야학의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해 고민과 토론을 거쳐 논의 끝에 서둔야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하였다. 서둔야학이 폐교되자, 서둔야학에 정열을 바쳐 왔던 선배들이 합심하여 1981년 다시 학생을 모집하여 수업을 재개하였으나 1983년도의 학생 모집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1983년에 폐교하기에 이르렀다.

서둔야학이 없어진 지 10년이 지난 1991년 11월 24일, 서둔야학에 몸담았던 교사와 학생 등이 모여 다시 서둔야학회를 설립하였다. 서둔야학과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서둔야학의 설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서둔야학회의 모임은 이어지고 있다(서둔동·탑동지, 2013:213-225 참조)

그이외에도 서둔야학에서 배움을 접한 이들이 모여 서둔야학 동기회를 구성하여 회원들간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3-31〉 서둔야학 그 때 그모습, 서둔야학회



자료: 서둔동·탑동지(2013) 외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이곳은 당사자들 이외에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일제강점기 우리문화를 말살하려던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국어를 지켜내 고자 노력하였던 야학터는 부지출입구가 자물쇠로 잠긴 채 잡풀이 무성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서둔야학이 비록 널리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지역사회 저변에서 국가정신과 민족정신을 기르며 실천해 온 현장형 활동조직이며, 최근 교육상에 대한 사회적 고민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7) 서울농대, 권업모범장(이전)

농업연구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서울농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농상공학교(1904년 설립)를 시작으로 농림학교에서 수원농림전문학교를 거쳐 1922년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해방 후 국립 서울대학교가 설치되면서 농과대학에 병합하게 된다. 농대는 농업기술 개발과 연구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서둔동 지역의 주민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왔다(사이다, 동네이야기).

서둔동에 위치한 다양한 농업 관련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역사가 오래된 것은 농업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기관이 들어선 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에 대한 실질적 지배체제를 구축한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지배를 시작하였다. 통감부의 지배는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방면에 대한 식민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통감부는 1906년 수원 서둔동 지역에 권업모범장을 설치함으로써 한국 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배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서둔동이 권업모범장 설치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리적 요건이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경부선 철도를 끼고 있었으며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즉 서울의 중앙 행정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각종 농업 관련 시험에 적합한 넓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쉬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림 3-32〉 과거 권업모범장의 모습



자료: 서둔동·탑동지(2013) 외

권업모범장은 설치 1년 만인 1907년 한국정부에 이양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식 농법과

종묘 이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관할에 있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즉 일본 기관의 지도와 감독은 각 지방의 권업모범장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한일합방에 따라 관할권이 조선총독부로 넘어갔으며 1929년에는 농사시험장으로 개칭되었다.

해방 후인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가 설치되면서 농과대학에 병합되었는데, 2003년 서울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까지 서둔동에 위치하였다(서둔동·탑동지, 황병주).

관악캠퍼스 이전 뒤에도 농장과 실험목장, 수목원 등이 남아 있어 여전히 중요한 장소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림 3-33〉 서울농대 현재모습



## 8) 잠사과학박물관(소실)

잠사과학박물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업과학기술원(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내에 있었던 특수박물관으로, 견사곤충 및 비단실의 가공, 옛 양잠의 기록 등 잠사문화의 유적과 유물 등을 전시하였으며, 2,353㎡ 규모로서 1999년 6월에 개관하였다. 역사관, 양잠과학관, 견사가공과학관, 양잠관, 견사기공관, 견사곤충표본관, 체험관 등 7개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역사관에는 옛날 양잠의 기록, 잠사업 연표, 농업생물부의 연혁, 실크로드 등을, 양잠과학관에는 누에 및 뽕나무 품종 개량, 누에씨의 보전 및 증식, 누에치기, 양잠교육기관의 변천 등을 전시하였으며, 견사가공과학관에는 비단실의 검사, 실 켜기 및 만들기, 비단실의 염색 및 가공, 비단실의 이용도 등을, 양잠관에는 양잠의 과거, 현재 및 미래 형태, 들누에에 관한 현물 전시, 잠상 산물류 등을 전시하였다.

견사기공관에서는 과거와 현대의 고치 말리기부터 천 짜기까지의 모든 것, 비단제품 등을 볼 수 있었고, 견사곤충 표본관에서는 실을 내는 곤충류, 거미와 실, 고치를 공격하는 해적곤충, 국내에 서식하는 대형 곤충류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봄철에는 누에를 직접 만져보는 체험도 할 수 있었다.

현재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으로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폐관되었다(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그림 3-34〉 잠사과학박물관



자료: 두산백과사전(www.doopedia.co.kr)

### 9) 푸른지대(소실)

서울농대 서쪽(후문)에 자리한 푸른지대는 60~70년대 수원이 손꼽는 명소 중에 명소였다. 주말이면 딸기를 먹기 위한 사람들의 행렬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곳인데 당시 수원을 비롯해서 서울과 용인 등 수원 인근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어 추억을 쌓았던 장소였다. 1973년도만 해도 5만 명이 딸기를 먹으러 푸른지대를 방문했을 정도라 하니 그 인기는 실로 대단했다(사이다, 동네이야기). 현재 이곳은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있다.

〈그림 3-35〉 푸른지대 딸기밭



자료: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그림 3-36〉 푸른지대 현황



## 10) 그 외 주변 산재 주요자산

### (1) 영신연와(소실 위기)

고색동 일대 가마터, 초벌 야적장, 무연탄 야적장, 창고, 노동자 숙소 등으로 나뉘져 있는 영신연와 건축물은 1960년대 지어지고 1980년대 초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이후 여러 업체가 임대해 부지를 쓰다가 2010년 고색동 일대 24만8310㎡에 공동주택, 기반시설 등이 들어서는 도시개발이 추진되면서 해당 건물도 철거대상이 됐다.

시설 내·외부가 노후화되긴 했으나 60여 년 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철거 소식을 들은 많은 주민들이 안타까워했다.

수원시도 영신연와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을 세우고 최근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보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조합에서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인천일보, 2018)

〈그림 3-37〉 영신연와 부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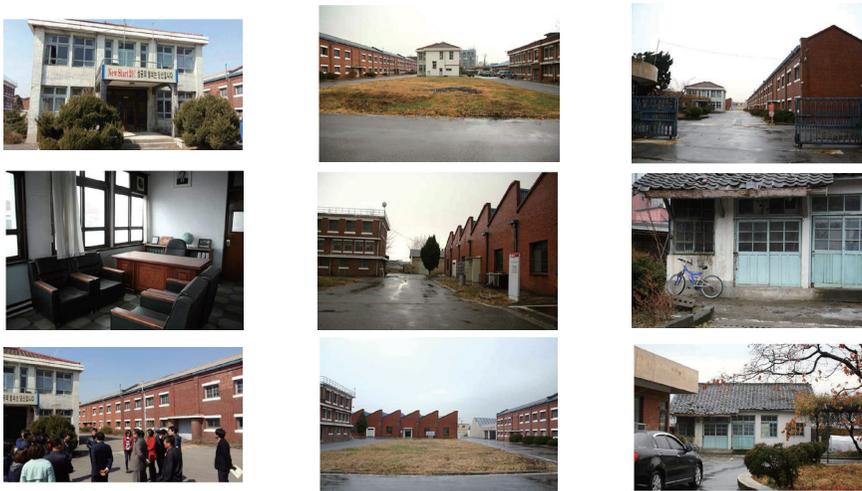


## (2) 선경직물(소실), 선경본가

선경직물은 1939년 만주 일대를 대상으로 직물을 수출하던 조지야가 조선에 세운 선만주 단과 일본의 교토직물이 1941년경 서로 합작하여 만든 것이다. 합작으로 생긴 1940년 평동 4번지에서 공장부지 8,000평을 매입하고, 그 후 수원공장은 1943년 4월에 완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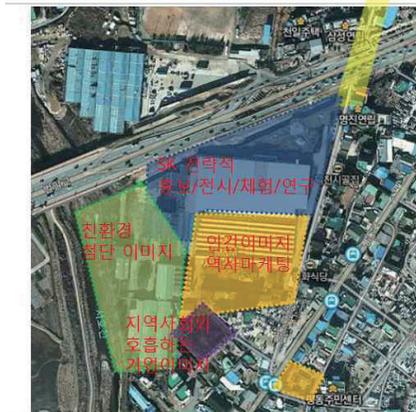
1945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면서 선경직물은 일본인 재산으로 미군정의 관리를 받다가 정부 수립 이후 정부에 귀속되었다. 현재 한국 5대 재벌 중 하나인 SK그룹의 창업자 최종건이 귀속기업체인 직물공장을 불하받아 1950년대 5대 대자본가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수원시, 2017).

〈그림 3-39〉 선경직물 부지 2016년 모습(도시정책 시민계획단 활동)



〈그림 3-40〉 선경직물부지재생 기획(안) 2016년 수원시정연구원 김주석박사

### 3. 계획방향 : SK그룹단위의 전략적 홍보/전시/체험/연구기능



1. 북측 = 권선(고가)로 및 수원역
  - SK 기업 활동 홍보, 체험, 연구
  - : 대형 전광면
  - : 제한적 개구부(저장, 시험, 체험)
2. 서측 = 서호천
  - 친수공간 : 조망+보행
  - : 친환경+첨단 이미지
  - : 내외부 연계공간
  - : 나무/유리, 데크, 바닥/벽면일체화
3. 동/남측 = 주택가
  - 기업제품판매, 기업이미지 홍보 (SK역사를 느낄 수 있는 쇼핑, 전시)
  - : 공장건물 외피 유지, 쇼핑물
  - : SK 생가, 본점, 집무실 등 역사성의 관광 콘텐츠화 (사진스팟, 부자 기운받기 등)
  - 지역주민이용 건강,여가시설 (관련 제품 체험 등)

선경직물 공장터 보전을 위해 도시정책시민계획단(한재관 위원장)과 수원시정연구원(김주석 박사) 등과 함께 그 보존노력과 대상지 정비방향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아쉽게도 2003년 9월 폐쇄되었으며, 현재 중고차 시장 SK V1 motors 건립을 위한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6층으로 연면적 19만 9379㎡의 규모로 8700여대(예정)의 자동차 관련 실내 전시공간을 갖출 계획이다.

〈그림 3-41〉 선경직물 터 개발계획과 부지 현황



한편, 선경직물공장 근처에는 SK그룹(선경그룹 개명)의 창업주 최종건의 생가가 있다. 최종건 회장은 1926년 이곳에서 아버지 崔學培(최학배) 공과 어머니 李同大(이동대) 여사의 4남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4년 경성직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그는 그해 4월 선경직물 수원공장 견습기사로 입사했다. 선경직물은 일제 강점기인 1939년 조선의 선만주단과 일본의 경도직물이 합자해 만든 회사로, 광복 후 미군정과 한국 정부의 관리를 받았다. 이 무렵 공장 생산부장으로 근무했던 그는 6·25전쟁 후 폐허가 된 공장 부지를 매수해 1953년 (주)선경직물을 설립했다. 최종건 회장은 1973년 48세의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인 노순애 여사와의 사이에 3남4녀를 두었다. 그의 死後(사후) 경영권을 동생 崔種賢(최종현) 회장이 물려받아 통신, 에너지, 금융, 유통 등을 총망라하는 오늘의 SK그룹으로 키워냈다.

〈그림 3-42〉 선경창업주 생가 현황



대지는 1290㎡(약390평)에 ‘L’자형 한옥으로 담장은 1.3m정도로 낮아 마당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대문은 평소 잠겨져 있으며, 공식적인 방문객 등이 있을 경우 개방하기도 한다. 동측으로 쪽문이 있어, 뒤편 관리숙소에 있는 관리인 등의 평시 출입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생가 앞마당에 목조로 된 2층 양옥이 한 채 있었는데, 2005년 최신원 회장이 생가 복원 작업을 하며 헐어냈다”고 말했다. 이때 2m 가량 되었던 붉은 벽돌 담장도 헐고 야트막한 기와 담장으로 바꾸었다고 한다.(월간조선, 2009)

### 3. 자연생태

#### 1) 서호, 서호천

서수원은 서호와 서호천, 수목원을 중심으로 현재 자연식생이 잘 보전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연 자원들이 많으며, 일정부분 보행공간으로서의 정비와 생태체험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림 3-43〉 서수원 자연생태 현황



2018년 5월 수원시는 전문가와 환경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서호저수지 내 인공섬 수목의 백화현상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공섬 내 식재된 수목 고사여부와 민물가마우지, 식생 등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호에는 민물가마우지가 서식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등지 수는 1,700여 개이며, 민물가마우지의 개체 수는 8,000여 마리로 추산하고 있다.

나무 식생 조사 결과 수목류는 아카시나무 등 15종, 지피류는 명아주 등 32종이 발견되었다. 서호 인공섬 내 수목은 아카시나무가 우점(95%)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피류는 명아주와 애기똥풀이 우점(90%)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관찰했을 때 숲 전체가 고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민물가마우지 배설물에 의해 수피가 백색으로 변해있는 상태이다.

〈그림 3-44〉 서호 인공섬 실태조사 현장사진



자료: 서호저수지 인공섬 실태조사 결과(2018), 수원시 내부자료

나무들 고사한 주요 원인은 천근성인 아카시나무가 태풍 시 도복되어 고사되었으며, 버드나무는 가마우지가 가지를 잘라 등지를 짓는데 활용하여 나뭇잎이 적다. 느릅나무 등 소수의 수목이 배설물에 의해 고사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량은 10주 정도의 소량으로 조사되었다. 서호 인공섬은 매년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배설물로 인한 수목피해는 미미하고, 강풍 등 자연적 현상으로 수목이 고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5〉 서호/서호천 자연식생



수목의 수피가 백색으로 변하여 고사한 것처럼 보이나, 현장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었으며, 향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시민 인식 개선 노력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호와 서호천에는 민물가마우지이외에도, 큰기러기, 기러기, 왜가리 등의 철새들과 물양

초, 마름 등의 수생식물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그림 3-46〉 서호천 정비현황 및 생태체험



서호천 정비현황

생태체험

## 2) 서울대 수목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221,022m<sup>2</sup>, 총 20개 필지)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북반구 식물의 증식과 보전, 전시, 연구를 위한 기관이다. 수원에 위치한 구 농학캠퍼스에는 캠퍼스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한 노거수들이 여럿 자라고 있다. 수원 서울대학교 수목원은 대체로 1907년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수목이 식재되었다.

〈그림 3-47〉 서울대학교 수목원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지는데, 동편에는 주로 교목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서편에는 교목과 관목, 잔디밭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는 동편만 개방해둔 상태이며 서편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현재는 수목 관련 지식과 정보의 축적과 교육을 위해 조성되어 있으며, 일반 관람은 불가능하다.

대학 및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정적 개방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총 2,266명이 방문하였고, 이 중 유아·초·중·고 학생의 수가 2,140명으로 확인되며,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 총 1,625명이 방문 하였으며 이 중 유아·초·중·고 학생의 수가 1,494명으로 확인된다. 평일에만 개방하며, 주말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 제2절 주민활동 자원

서둔동을 근거지로 지역의 자연 및 인문, 사회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주민 조직을 보면,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벌터재생협의체, 서둔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서둔동 벌터마을회, 벌터온, 벌터문화마실, 권선한마음봉사단 등이 있다.

이외에 해당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도시정비에 관심을 갖고 향후 지역관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중간활동조직으로는 수원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있다.

### 1.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2003년3월30일 여기산공원 광장에서 수원시장 및 시의원의 축하 속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하였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법인) 현황’ 서류상의 설립목적에 보면 경기도 명예환경 감시원으로 녹색혁명의 산실이며 철새도래지 축만제 수질보전 및 주변환경 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조직된 시민단체로 자연환경을 원래의 질서 속으로 복원시키는 적극적인 행동 주체가 되어야 하기에 「서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이름으로 생태를 찾아가고자 설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활동기간 : 2003년 3월 ~ 지속
- 구성인원 : 약 10여명 (공무원, 군장교, 기업체 간부, 교사, 엔지니어 등 출신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임 구성)
- 활동내용
  - 서호사랑활동 : 매주 월요일 서호 산책로 주변 쓰레기 줍기, 주변 정리 및 청소, 수질 조사, 탐조, AI조류 조사
  - 문화 행사 : 봄 가을 연 2회 「빛 바랜 사진 전시회」 개최
  - 지역사회 공헌 활동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 화성 및 서호, 향미정, 농민회관, 권업모범장, 둔전, 여기산 등 문화유산 해설
  - 시민 질서 지키기 활동 : 애완동물 목줄, 입마개, 쓰레기 되가져 가기, 풋말 설치 등
  - 수질생태모니터링 : 일월, 일왕, 서호
  - 회원 자질 향상 교육 : PC, 카메라, 자동차, 스마트폰 등 문명의 이기와 일반소양 교육, 도시농업 지도 등

〈표 3-9〉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세부활동내역(2017년 기준)

활동내역	세부활동
수질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호소 수질 및 철새 모니터링은 3월~11월까지 9회 실시</li> <li>- 수질검사는 화학적 모니터링 실시 결과 일왕, 일월 저수지는 전년 대비 COD,T-N 개선에 기미가 보였으나, 서호 호소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장기 가뭄으로 악화되었음.</li> <li>- 하천 내 유기물과 무기물의 분해과정에서 필요한 산소량과 오염물질 유입량 테스트</li> <li>- 철새조사 : 물가마우지, 왜가리, 백로, 쇠백로,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논병아리, 비오리 등 숫자가 증가하고 있었음</li> </ul>
문화행사	축만제 촬영 빛바랜 사진전시회 상,하반기 전시회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마쳤으며, 현재 260매
문화유산해설	서호를 방문하는 체육시간 방문학생, 산책 시민, 삼남길, 모수길 둘레길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축만제, 향미정, 농민회관, 여기산, 권업모범장 해설
서호 둘레길 정화 활동	서호 둘레길 2,15km를 매주 월요일 아침 청소 시행
기타	불법 공원 이용자 캐드, 풋말제작 설치, 잔디 보호, 오토바이 출입 통제, 서호천 낚시금지, 우측통행

〈그림 3-48〉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활동



빛 바랜 사진 전시전



서호 일일 만석거 수생태 조사



서호 공원 정화 활동



환경단체 참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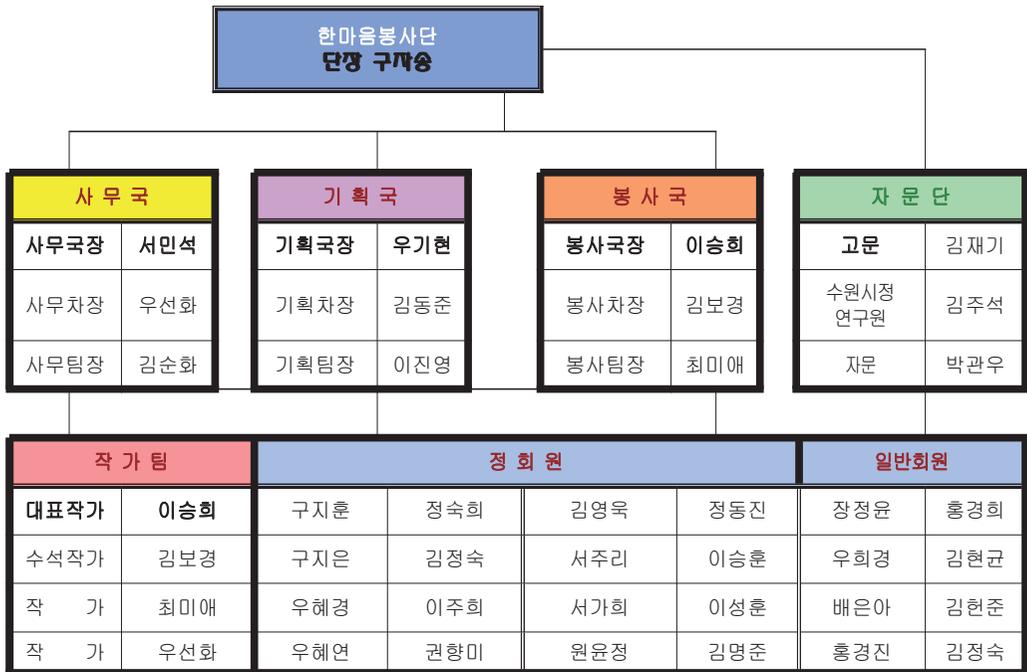
자료: 서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내부자료

## 2. 권선 한마음봉사단

권선 한마음 봉사단은 지역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통학로 안전과 환경개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모임이 시작되었다.

- 활동기간 : 2013.3.1. ~ 지속 / 등록일 : 2014.7.21.
- 주 소 : 경기 수원 권선 탑동 867-2 101호
- 구 성 원 : 단장, 사무국, 기획국, 봉사국, 자문단, 작가팀, 정회원과 일반회원 총 40명

〈그림 3-49〉 권선 한마음봉사단 조직도



- 구성계기 : 마을내의 낙후된 공간을 개발하여 마을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함.
- 구성원 특성 : 권선구에 있는 지역주민과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 봉사에 투철한 정신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단위로 구성
- 활동내용 :
  -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봉사활동
  - 관내 환경정리 및 주변 환경정리
  - 관내 독거노인 등 밀반찬 나누기 봉사
  - 농촌 봉사활동 및 농촌체험 봉사활동
  - 관내 장애인 취미 및 재활봉사

- 관내 저소득층 자녀 대상 재능기부 및 봉사
- 주요활동 및 경과
  - 한마음 카프리데이 : 연중 4-5회 아이들과 함께하는 카프리데이(다양한 체육활동, 인라인대회, 길거리 수영장 등 개최)
  - 벽화활동 : 낙후된 마을의 벽에 그림을 그려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마을 환경을 개선
  - 반찬봉사 : 월1회 반찬봉사를 통하여 독거노인을 돕고 나눔을 실천
  - 김장봉사 : 연1회 김장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
  - 마을공방 : 누구나 와서 무료 강좌를 받을 수 있는 마을공방 실시

〈그림 3-50〉 한마음봉사단 활동사진



카프리데이



벽화활동



반찬봉사



김장봉사



마을공방

## 4. 벌터재생협의회

벌터마을 재생사업은 서둔동 벌터마을회 및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되어 마을정원 및 안심마을 사업을 연계하여 마을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벌터재생협의체는 2018년2월부터 시작된 벌터마을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주민단체이다. 2018년3월 9일 사업사전설명회를 갖고 14일 발대식을 가졌다.

- 활동기간 : 2018. 3. ~ 지속
- 구성인원 : 50여명
  - 서둔동 마을만들기 협의회장 및 회원
  - 시민안전과, 공원녹지사업소, 구청 건설과 등 사업추진 관련부서
  - 서호지구대, 수원소방서, 서호초등학교 등 유관기관장
  -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 지역인사
  - 벌터지역 통장 및 벌터지역 주민모임 회원
- 활동내용 : 벌터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

\* 벌터재생사업 : 벌터 지역에서 진행되는 2018 행정안전부 안심마을 사업, 경기도 시민공동체 마을정원 프로젝트 사업 및 수원형 파복공동체 지원사업, 총 3가지 공모사업의 통칭

- 관리부서 : 서둔동

〈그림 3-51〉 벌터협의체 발대식과 안심마을 벤치마킹



자료: 서둔동주민센터 내부자료

## 5. 서둔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서둔동 마을만들기 협의회는 수원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의거 행정동에 설치된 조례기구로 지역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총괄하며 매월1회 정례회의를 갖는 주민협의기구이다. 마을내의 공모사업 등에 대한 조정 및 신청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활동기간 : 2013. ~ 지속
- 구 성 원 : 서둔동 마을만들기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회원 20여명
- 활동내용 : 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마을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 관리부서 : 서둔동(수원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그림 3-52〉 서둔동 마을만들기 협의회 주요활동



## 6. 서둔동 별터마을회

별터문화마을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마을 주민들간의 관계의 접점을 늘리고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지향적 디자인을 통해 별터 마을의 문화적 특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별터마을회는 이 별터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조직으로 서둔동 통장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 추진기간 : 2016. ~ 지속
- 구 성 원 : 별터마을 통장 및 별터마을 주민 20여명

- 활동내용 : 2016년부터 문광부와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지속해온 '별터문화마을' 사업의 구심점이며, 경기도 마을정원 프로젝트, 수원형 파복공동체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주체
- 관리부서 : 해당없음(자생단체)

〈그림 3-53〉 별터문화마을 사업



- 별터문화마을 사업 내용**
- 문화마실 초대 : 한 달에 한번 주민들을 문화마실에 초대해 열리는 음악회와 인문학 콘서트
  - 마을축제 : 봄과 가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는 작은 축제(봄-벼룩시장, 가을-서호천 축제, 정월대보름 - 꽃꽃놀이)
  - 마을학교 : 직조, 제빵, 손바느질, 가양주, 연극, 인문학 등 문화마실에서 진행되는 문화수업과 별터경로당, 서호초등학교 등과 같이 마을 거점으로 찾아가는 연계 프로그램, 별터와 서둔동 일대에 대한 지역역사를 공부하고 필요한 의제를 실천하는 서둔'야'학
  - 마을잡지 마을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과 이야기, 마을 소식을 담아내는 기간 저널
  - 마을조사연구 마을의 역사와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마을 스토리텔링을 위한 리서치
  - 커뮤니티 디자인 마을의 환경을 관계 지향형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디자인 작업 (평상, 공유지대, 아름다운 길, 게시판, 이정표 설치 등)
  - 별터마을 커뮤니티하우스: 문화마실 주민들을 편하게 만나 회의/공부, 요리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공간

〈그림 3-54〉 별터마을회 활동모습



게릴라 가드닝



경기도 마을정원사업 회의

## 7. 별터 온(ON)

'별터 온(ON)'에서 운영한다. 별터 온은 마을 내 유일한 놀이터인 별터어린이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터로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단체다. 주로 마을놀이터를 활용한 벼룩시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에서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즐기며 별터 마을 아이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희망하는 조직이다. 벼룩시장 수익금 중 일부는 마을기금과 서호 초등학교 장학금으로 사용된다.(인천일보, 2018)

- 활동기간 : 2017. ~ 지속
- 구 성 원 : 서호초등학교 학부모 10여명
- 활동내용 : 별터마을 내 유일한 공원인 별터어린이 공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터어린이공원 환경개선활동을 펼치고 있음
- 관리부서 : 해당없음(자생단체)

〈그림 3-55〉 별터 온 활동 모습



### 제3절 지역자원에 대한 가치확인

본 연구의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의 보전 및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2015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원지역의 도시 및 건축 관련 교수 등 전문가들<sup>11)</sup>과 함께 운영한 수원미래전략연구포럼을 통해 ‘수원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타이틀 필요’, ‘선택과 집중의 도시관리’, ‘수원다움’에 대한 연속된 논의 속에서 ‘문화생태도시 수원’이 대두되었고, 그 실현 방안으로 서둔동 일대에 대한 에코뮤지움 적용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음을 검토하였다.(김주석, 2015)

한편, 대상지역의 에코뮤지움 방식의 재생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확인방법은 수원시의 도시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관협력 시민활동모임인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활용하였다.

#### 1. 서수원 소위원회 운영

##### 1) 서수원 소위원회 운영 개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원탁토론 안전선정을 시민계획단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안전발굴에 있어 ‘서수원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한 수원역 인근 도심재생’에 대한 원탁토론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한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서수원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히 관심 있는 6인으로 ‘서수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자원 발굴 및 정리와 지역특성 이해 및 공유하고, 원탁토론의 가능성 및 논의 진행 시 예상되는 과제에 대한 준비 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소위원회는 ‘서수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주제에 대한 이해와 그 방안을 주제로 6월29일부터 총 6차에 걸쳐 매주 회의를 진행하였다.

##### 2) 서수원 소위원회 운영 결과

###### (1) 서수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주제에 대한 이해

- 향후 비행장 이전등과 맞물려 개발압력 증가
- 서수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원역의 유동인구(젊은층)의 지역 내 유입 유도필요
  - 건전한 데이트 코스 설정(푸른지대는 80년대 데이트 명소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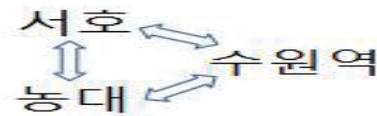
11) 김상연, 김주현, 김진유, 김현, 엄서호, 윤효진, 이상수, 김주석, 김숙희 등

- 서수원 권역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이 있다.
  - 서호, 농대부지 : 데이트 명소화
  - 양카라공원 : 터키군 운영 고아원, 한국전쟁의 기억, 국제교류
  - 야학터 : 서울대학생들에 의해 운영된 야학
  - 쪽박산 : 지역의 자생적 복지, 더불어사는 삶
  - SK그룹 본가 및 선경직물터 : 경제의 기억
  - 서울농대부지, 농진청 부지 : 지난 기억과 새로운 공간활용
- 수원역을 기점으로 보행중심의 재생
  - 탐방루트를 따른 중소형 음식점 카페, 소품점 등 형성
- 농업에 대한 기억 : 수원딸기, 농업박물관, 농진청, 우장춘 묘역

(2) 서수원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예비논의를 통한 도출 내용

- 지역탐방로
    - 주제
      - 젊은戀人(건전한 연예)= 서호, 푸른지대(복원) 등
      - 母子(교육) = 양카라 공원, 야학 등 역사문화자원
    - 루트
      - 거점연결방식, 부분적 중첩가능
      - 밀도와 이동거리 고려필요 = 보행반경 400m 이내
      - 이동중 쾌적성 = 연도형상가, 거점, 차없는 거리, 지역내 소형카페 식당 등 유도
- ※거점 : 서호(수변자원), 서울농대(문화체험), 수원역(유동성, 교통), 농업박물관(노상거점)  
 ※차없는 거리 : 농대앞 길 등 검토

※ 1루트 :



- 이동방법(교통수단) : 생태교통
    - 보행, 트램 연장(수원역-서호(농진청)-농대-비행장), 자전거
  - 지역탐방로 삼남길(코리아트레일 22코스) 연계 검토
- 지역내 자원 및 콘텐츠 추가 발굴
    - 야학, 수원역 물탱크, SK본가, 양카라공원 : 설명/게시판, 정비

- 터키군 주둔지 : 마장 조성
- 딸기밭(+포도밭) : 재배지 조성(시민텃밭 형식) = 서울농대 남측면 솔밭 등 활용
- 잠업박물관, 석빙고, 선경직물, 굴뚝(영신연와), 삼강사와 : 기억물
- ※ 굴뚝(영신연와) : 아파트 단지에정지에 있으며 이에 대한 기억을 남기기 위한 방안 필요  
→ 아파트 벽면 그림/디자인, 대상지에 기념물 등 배치 등

### (3) 원탁토론에 대한 점검

- 현황 : 이제까지는 기 결정된 사안의 세부항목에 대한 취사선택에 있어 시민선호도에 따른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여 옴.
- 향후 방향 : 실질적인 토론의 추진
  - 논의대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지역 정비에 대한 개략적 정비방향 수준이 바람직.
    - 세부적 도시계획사항을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공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도시계획은 특정의 정책결정권자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별도의 객관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생활권내 주민들의 50% 이상 참여
    -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한정된 시간안에 논의 효율이 낮음
    - 이해부족에 따른 오견의 가능성이 높아짐.
    - 현재 시민계획단이 전체 시를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고려(향후 지역단위 분할 운용 검토)
  - 시민계획단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차원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공론화 필요.

### 3) 서수원 소위원회 원탁토론(안)

가. 대상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 = 설명 (15분)

- 도시계획현황: 수원비행장, 동쪽에 치우친 개발, 서울농대부지, 서호/서호천 일대
- 근대 역사 및 특성 : 푸른지대(수도권 데이트 명소), 한국전쟁 등
- 지역내 역사문화 자원, 자연자원
- 수원역 유동인구(젊은이들)

나. 논의 주제

- 향후 대상지역을 어떻게 정비해 나가는 것이 수원시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인가? (선택형 논의, 30분)

- ① 현상태 유지
- ② 지역 자원(자연자원,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명소로 재생, 활성화
- ③ 지역특성은 필요 없다. 전면 재개발
- ④ 자동차 관련 산업 시설 유치
- ⑤ 기타

※ 기타의견으로 부분거점개발 등 의견 유도

지역특성(역사문화자연자원)을 살린 지역정비+ 부분거점개발.

- 대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유의할 사항 논의 (총 60분)

○ 서호천변녹지 유지의 필요성(20분)

- ①필요하다.(현상태 유지)
- ②필요하다.(보행환경 개선)
- ③필요없다.
- ④기타

○ 신규 정비 및 조성 (40분)

- ①-1 지역거점(수원역 서측KCC부지, 서호, 서울농대부지) 유치 기능
- ①-2 거점간 연결 = 자동차중심 vs 보행 및 생태교통(자전거, 트램 등) 중심, 기타
- ② 푸른지대(딸기밭, 포도밭) 복원 : 필요 vs 불필요,  
관리운영방안 : 시직영/위탁/시민농장화/기타

다. 대상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역할 및 주민의 역할 : 자유로이 (30분)

4) 예상 기대효과

(1) 참여 시민이 얻는 것

- 수원역 서측(서둔동 일대) 도시계획적 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
- 수원역 서측(서둔동 일대) 지역자원에 대한 이해 증진
- 대상지역 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 참여

(2) 시가 얻는 것

- 수원역 서측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정비방향 및 근거 시민의견 확보
- 개발사업 구상 및 협상 시 참조자료 활용
-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한 도시정비방향 설정 우수사례
- 

※ 후속조치

- 지구단위 계획 등 시민의견을 반영 수립
- 대상지역 거점 개발 등 구체적 사업에 대한 지역단위 시민계획단 운영

2. 원탁토론

본 원탁토론회 주제는 시민계획단에서 제안한 ‘서둔동 일원의 바람직한 미래상은?’이라는 주제에 더해 시청 도시계획과가 제안한 ‘수원형 스마트시티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2개 주제로 진행되었으나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 맞춘 서둔동일대 재생방안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그림 3-56〉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자료



1) 개요

- 일 시 : 2018. 11. 30.(금) 14:00 ~ 18:00
- 장 소 : 수원역 노보텔 엠베서더(2층, 삼페인홀)
- 참석대상 : 415명
  - 내빈 : 20명(공동위원장, 자문위원, 시의원)

- 시민계획단 : 370명(분과장, 퍼실리테이터, 토론참여자)
- 행사진행 : 25명(수원시정연구원 등)
- 원탁토론 회의진행

〈표 3-10〉 원탁토론 회의 진행 순서



〈그림 3-57〉 시민계획단 원탁토론 모습





- 서둔동 일원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 1순위 :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공간 조성
  - 2순위 : 친환경적인 개발



#### 4) 시민계획단 토론결과 종합의견

- 수원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도시문제 분야에는 '안전·생활 복지분야 (32%)'와 '교통분야(31%)'가 우선시 되어야 함
  - 안전·생활 복지분야 : 치안문제, 주거환경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 교통분야 : 주차난 문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 서둔동 일원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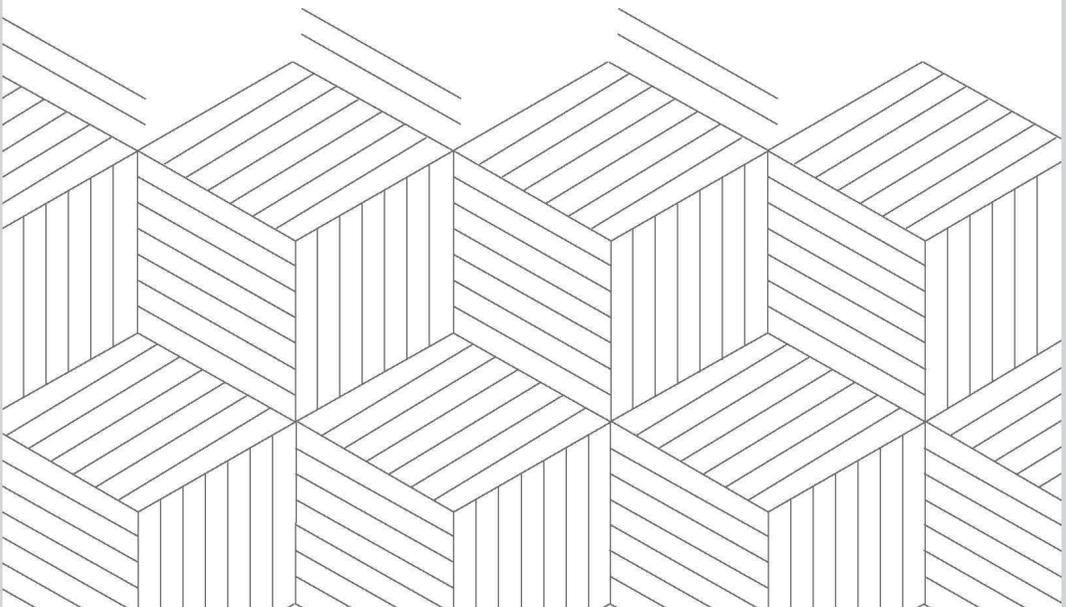
#### 5) 향후 추진계획

- 서둔동 일원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변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음

# 제4장

## 결론 및 제언

제1절  
제2절  
제3절





## 제4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결론

#### 서둔동 일대(수원역 서측-서울농대 부지-서호)의 높은 에코뮤지움 적용 가능성

수원역 서측에서 서울농대와 서호일대를 아우르는 서둔동 일대는 수원도심인 수원역에 매우 근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비행장의 영향으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생태적 환경이 매우 양호하며, 역사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지역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본 연구는 향후 수원공항 이전과 더불어 대상지역에 대한 도시적 차원의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도심속 환경생태를 유지하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비방향으로 에코뮤지움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에코뮤지움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현지에 보존, 육성, 전시하는 것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의 유지 및 관리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는 개념이다.

서둔동 일대는 도심에 근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환경이 양호하며,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이 산재해 있고, 도시·건축적으로도 활용가능한 요소가 많다. 개별 자원의 독립적 보전 보다는 지역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정비 및 보전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특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비수법으로서 에코뮤지움 기법이 매우 적절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수원시가 표방해 온 인간중심 도시, 환경수도 등 주요 도시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에코뮤지움 기법의 적용은 서둔동 일대에 적절한 지역정비·활성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서둔동 일대는 평탄지역에 많은 자원들이 밀집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보행접근이 매우 양호하며, 지역관리에 관심 있는 다수의 주민조직이 활동 중이기 때문에, 에코뮤지움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개발압력이 낮은 상황에서도 잠사박물관, 선경직물, 정미소, 푸른지대, 영신연와 등 최근 들어 소실되거나 소실의 위험이 높은 지역자원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서둔야

학, 서울대수목원 처럼 그 가치에 비해 거의 외부에 알려져 있지 못한 지역자원들이 있다.

따라서, 점차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대하는 이 시점에서 서둔동 지역에 대한 자원 조사와 가치부여 및 보호·보전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 제2절 정책적 제언

에코뮤지움 적용계획의 수립에 앞서 지역자산의 가치와 보전상태의 확인, 활용가능성 그리고 주민의 주체적 참여가능성의 확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대상구역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공간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전체를 통합하는 거점(core), 체험요소(satelight), 체험경로(Discovery Trail)가 설정되어야 한다.

- 거점 : 만남, 안내, 휴게, 체험, 전시 등의 기능을 하는 거점시설
- 체험요소 : 현지에 다양한 방식으로 보전되는 전시, 관람, 체험대상
- 체험경로 : 거점과 체험요소 혹은 체험요소 간을 연결하고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동동선 (발견의 첩경)

상기의 공간계획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구성되어지는 경우 지역전체가 하나의 자원이 되고 특성화가 달성될 수 있다. 즉, 과거와 같이 신사, 절, 명승지, 절경 등의 기존 유명 관광자원을 광범위하게 이동하면서 순회하는 타입의 관광을 넘어서, 넓은 의미에서의 새로운 주제를 갖는 여행 필드가 된다

### 1. 3대 거점(휴게, 체험, 전시) 정비

서둔동일대를 에코뮤지움으로 설정함에 있어 여정의 도입 스팟(Spot)은 대단위의 유동성을 보이고 있는 수원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수원역에서 서둔동일대를 인식할 수 있는 도입장치(공간, 사인 등)가 필요하며, KCC 부지를 활용한 광장조성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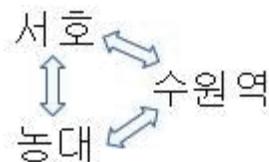
다른 지역거점으로는 구(舊)서울농대부지를 들 수 있다.

유려한 수림과 넓은 공간, 다양한 공공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도심 숲속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전시, 휴식 등이 가능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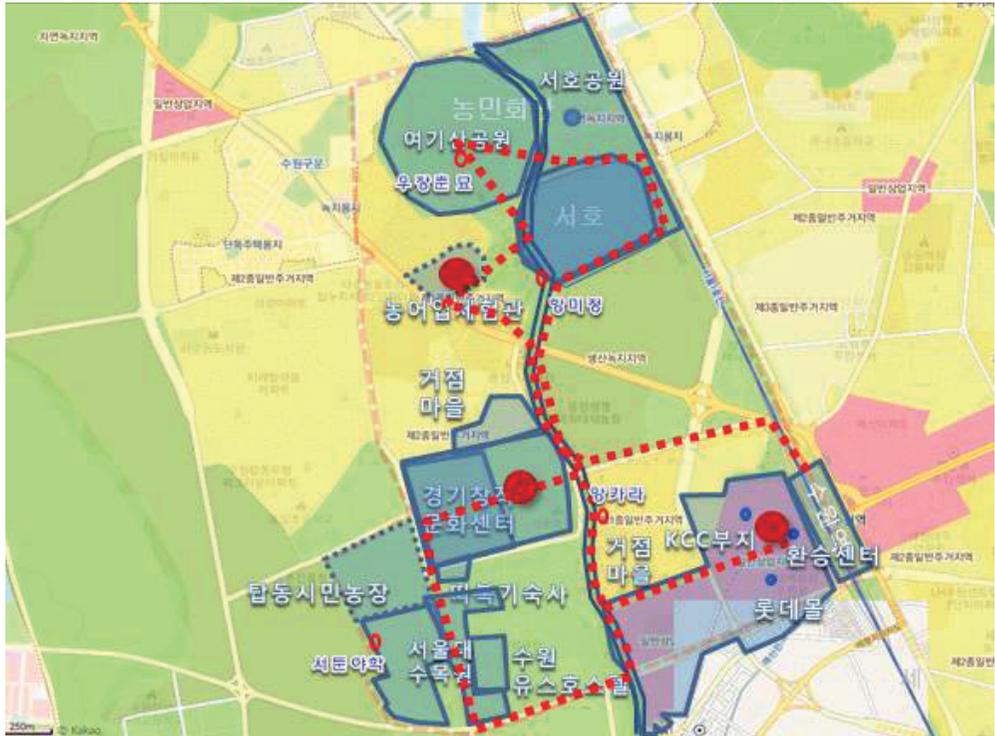
또 다른 지역거점으로는 서호일대를 들 수 있다.

또한 서호 근처에 위치하게 될 농어업 체험전시 박물관을 포함하여 도심 속 농업문화의 체험과 전시, 휴식등이 가능한 공간이다.

- 수원역(+환승센터+ KCC부지)
- 서울농대(+경기창작문화센터+서울대수목원)
- 서호(+농어업체험관+더함파크)



〈그림 4-1〉 서둔동 일대 보행동선을 고려한 3대 거점 설정



## 2. 지역탐방 테마설정 : 주요거점과 체험요소를 있는 순환형 보행가로 정비

서둔동일대의 주요자원의 성격을 보면, 수원역(유동인구, 쇼핑), 서호 및 서호천(친수 생태, 역사, 휴게), 서울대(역사, 생태, 휴게), 서둔야학터(역사), 양카라 공원(역사), 푸른지대(연애), 농진청 터(농업, 역사, 휴게) 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지역의 탐방주제는 역사학습, 필드 데이트의 2가지 주제에 생태를 접목하여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동수단은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교통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수원역 까지 계획되어 있는 트램의 연장도 고려할 수 있다.

탐방로는 단순한 이동통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장소성과 체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차없는 거리 등 가로내 행사 및 가로변 연도에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일단의 연도형 상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탐방로는 가로수를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하여 지역특화 가로수길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원역에서 대상지역으로 유입하는 보행동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주제 : 필드 데이트(연인), 역사학습(2세대)



다.

- 지역주민 문화해설사 조직 구성
- 지역이야기 조사발굴
- 자연건강식단 유도
- 환경부담 저감형 소형카페 점포유도
- 생태교통 활성화 교통 순환체계(자전거길, 트램) 정비

※ 탑동시민농장을 신 푸른지대(딸기/포도)로 조성

## | 참고문헌 |

## 〈국문 자료〉

- 김홍남(2005), 염암 구림마을만들기 뒷이야기, 건축 49(6). p.109.
- 김성균 외(2016), 경기만 날개를 펴다. 경기만 에코뮤지움 기본구상, 사단법인 지역사회연구원 경기창작센터
- 이정환(2015), 지붕 없는 박물관 『 에코뮤지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연구원 소식지 1월호
- 양희은 외(1명)(2013), 인천 배다리 지역 생활·역사문화를 반영하는 에코뮤지움 계획,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주석 외(2015), 수원 미래전략 연구포럼 구성 및 운영, 수원시정연구원 정책보고서.
- 김숙희 외(1명)(2014),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지역의 마을환경 만족도 분석, 교통기숙과정책, 11권 4호(통권 50호), pp.64-72
- 배영동(2007), 마을문화전시관으로 본 마을문화의 자원화 과정: 의성 '사촌마을자료전시관'의 사례,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6권 0호, pp.7-33
- 배영동(2011), 주민 주도형 마을문화자료관 만들기의 가능성과 의의, 실천민속학회 17호, pp.123-155
- 네이버 지식백과, 학선리 마을 박물관 [鶴仙里-博物館]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경기학연구센터(2013), 통일촌마을박물관 도록
- 수원시(2017), 수원의 역사 수원의 문화재, 수원시 문화예술과
- 임학순 외 5인, 1999,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정책과제 99-11.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www.heritage.go.k](http://www.heritage.go.k)
- 수원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suwonsarang.com/>
-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encykorea.aks.ac.kr>
- 나무위키 사전 홈페이지(<https://namu.wiki>)
- 연합뉴스(2016), 경기만 일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조성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082100061>.  
HTML
- 서울신문(201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701800075>
- 국민일보(2013), 민통선 마을 파주 통일촌 '브랜드마을' 탈바꿈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463816><http://news.kmib.co.kr/article/>

view.asp?arcid=0007463816

두산백과사전(www.doopedia.co.kr)

경기경제신문(<http://www.ggeco.co.kr/news/44046>)

시사매거진, 2016.4. '농어역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착수.

옴부즈맨뉴스, 2016.6, 서울농대 살리기 1탄'경기상상캠퍼스'11일 오픈,

사이다, 동네이야기 <http://magazine-saida.com>

경기도기숙사 홈페이지(<http://www.ddabokdorm.or.kr>)

서둔야학사(2000) 서둔야학사편찬위원회.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경기신문, 2015.3.31., 전자신문4면, 수원역 하루 유동인구 35만여명'황금상권', 윤현민기자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259#08hF>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2018, 제55회 2017철도통계연보

한국학중앙연구원(2018) 향토문화전자대전

#### 〈외국어 자료〉

新井重三(1995), 실천 에코뮤지움 입문, 牧野출판:교토

大原一興(1999), 에코뮤지움으로의 여행, 広島대학출판회:히로시마

Hamalainen, R.P. and T.O. Seppalainen, (1986) The Analytic Network Process in Energy Policy Planning Science,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Vol.20, No.6, pp.399-405



| 저자 약력 |

김주석

공학박사(사회공간시스템학)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현)

경기도 지속가능협의회 마을의제 실행위원

수원시속가능협의회 연구위원회 위원

E-mail : tinkneti@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동단위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2017, 수원시정연구원)

「지역단위 주민계획·조직의 통합적 운용을 통한 도시재생제도 연구」(2017,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수원시 공동주택 지원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2017, 수원시정연구원)



